



교육연합신문



2026년 5월 20일 (수) 제444호 (창간 2009년 1월 22일)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 ▶4면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는 5월 14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갈등을 넘어 책임으로, 경쟁을 넘어 서울교육의 미래로 나아가겠다"라며 서울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오늘은 서울교육의 다음 4년과..."



부산 6개 진로교육지원센터 공모 선정 ▶11면

부산광역시 사하구·동래구·사상구·영도구·중구·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가 함께 하는 '유유마켓'팀이 교육부 주관 '2026년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5월 14일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16면

코로나19 팬데믹과 교원 이슈, 학생인구 변화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겪은 지난 8년 동안 인천교육을 이끌어온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3선 도전에 나섰다. 그는 '읽건쓰로 대표되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과 AI 시대 교육혁신...'

정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시행

교육부·경찰청 등 6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치유·상담·피해구제 원스톱 지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5월 14일 서울 특설 한강공원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 18일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거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청

소년 사이버도박 단속 인원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715명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715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과 대응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신고 접수부터 상담·치유·사후관리·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교육부가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교육과 제도 홍보를 담당하고, 경찰청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한 자진신고 접수와 선도 중심 사건 처리를 맡는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부

지센터 연계 상담을 지원하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초기 면담과 중독 선별검사,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구제 지원, 상담 매뉴얼 마련, 예방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번 자진신고 제도는 지난해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됐다. 당시 자진신고한 청소년 512명 전원이 도박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됐고,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인 4명에 그쳤다. 정부는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청소년 도박 중독을 조기에 예방

하고, 사이버도박을 단순 온라인 게임처럼 인식하는 잘못된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합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이며, 신고는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상담과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중독 치유 전문기관과 연계한다. 정부는 특히 청소년들이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해 피해 상담과 원스톱 구제 지원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김병선 기자 kbs@



전남·광주교육청, 'K-에듀파인' 재정 분야 통합 추진

정보시스템 실무협의체 회의서 예산 이체·결산 기능 개발 방안 집중 논의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5월 11일 오후 2시 전남교육청장의융합교육원에서 '제7차 교육행정체제통합 정보시스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자치교육청 출범에 맞춰 'K-에듀파인' 시스템의 재정 분야 통합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보시스템 실무협의체 위원을 비롯해 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양 교육

청 예산 및 결산 분야 담당자, 통합 시스템 개발 수행사인 ㈜아이티센 글로벌,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기술적 검토와 제도적 보완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양 교육청 간 예산 이체 방안과 결산 기능 개발 범위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행정 공백 최소화에 주력했다. 아울러,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의 안정적인 회계 처리를 위해 ▲

정을 위한 계약 체결 준비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윤양일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장은 "재정 시스템의 안정적인 지원은 통합 교육행정의 핵심 과제"라며, "교육부, 개발 수행사, 양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예산 이체와 결산 등 주요 기능이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중고생 도전하는 국내 최초 AI 올림피아드 'KOAI 2026'

IOAI 국제이사회 인증 국내 유일 기관 한국정보기술진흥원 주관

한국정보기술진흥원은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AI) 분야 올림피아드인 '한국인공지능올림피아드(KOAI) 2026'을 개최하고, 5월 4일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등부 접수는 5월 22일까지, 중등부 접수는 6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의 AI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오는 8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국제인공지능올림피아드(IOAI) 2026'에 파견될 대한민국 국가대표 4인을 선발하는 자리다.

단순한 경시대회를 넘어 우리나라 AI 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정보기술진흥원은 국제인공지능올림피아드(IOAI) 국제이사회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기관이다. 글로벌 후원사로는 세계적 트레이딩 기업인 IMC와 제인 스트리트가 이름을 올렸고, 구글, 화웨이, 아부다비 인공지능 대학이 후원에 동참한다. KOAI 2026 고등부는 1차 서류평가, 2차 온라인 필기 시험, 3차

국가대표 선발전 면접의 3단계로 진행된다. 1차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노션·깃허브 페이지 등으로 제출하는 AI 활동 포트폴리오를 종합 심사한다. 특히 포트폴리오 반영 비율이 40%에 달해 단순 암기형 학습이 아닌 실제 프로젝트 경험과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2차 필기는 6시간 동안 선택형 80문항과 서술형 10문항으로 진행되며, 출제 범위는 머신러닝·딥러

닝 전 영역을 포괄한다. 3차 면접에서는 AI 코딩 테스트와 영어 의사소통, 윤리 의식, 팀워크 등 국가대표로서의 종합 자질을 평가한다. 이번 대회는 고등부와 중등부로 이원화돼 운영된다. 고등부는 5월 4일부터 22일까지, 중등부는 5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중등부는 3시간 동안 선택형 40문항과 서술형 5문항으로 출제되며, AI 기초 역량을 가능해보기에 적합하다. 시험은 6월 13일 온라인으로 동시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s://kitpa.org/koai/202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KOAI 조직위원회 이메일(koai@kitpa.org)을 통해 가능하다. 이윤연 기자 lyy@

유치원·어린이집 아침·저녁 돌봄 강화

교육부,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확대 검토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7일 맞벌이 가정 증가로 영유아 출근 시간대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침·저녁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치원에는 '유치원 시니어돌봄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집에는 아침돌봄 담당 교사 수당을 지원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유아 돌봄 특화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올해 3월부터 전국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시니어돌봄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은 시범 운영 단계지만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2027년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배치 수요를 적극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아침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을 신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최대 2학급까지다. 이번 지원으로 보다 안정적인이고 체계적인 아침돌봄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아침돌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개선·보완 사항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병선 기자 kbs@

"학생을 위한 공간, 교육을 위한 가치를 만드는 선택"

월드퍼니처가 함께합니다

ONLY WORLD BENEFIT

BENEFIT 01	BENEFIT 02	BENEFIT 03
<p>연계고용부담금</p> <p>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p>	<p>총액 계약</p> <p>조달청과 수의사담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제도</p>	<p>수의 계약</p> <p>금액에 상관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도</p>

WORLD FURNITURE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주식회사 월드퍼니처 | 1588-3886 | 부산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23

한국산업표준(KS)·단체표준(SPS) 일관성 검토

국내·외 표준 분석 70개 세부항목 체계화... “K-표준,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내 표준의 품질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검토기준이 마련됐다. 한국산업표준(KS)과 민간 단체표준(SPS) 제·개정 실무자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방식의 일관성 검토기준이 개발됐다.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연구회 류길홍·박윤주 교수 연구팀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서비스표준연구회’ 류길홍 교수 연구팀은 ‘한국산업표준과 단체표준의 일관성 검토기준에 관한 연구’를 통해 KS A 0001(표준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기반으로 36개 KS 분야와 10개 단체표준의 문체적 일관성 검토기준을 분석하고, 국제표준(ISO/IEC) 규정까지 반영한 실무 중심 검토기준을 제시했다고 지난 5월 4일 밝혔다.

그간 KS A 0001은 기본 지침이었으나 실제 제·개정 과정에서 체계적인 일관성 검토가 부족해 표 준별 품질 편차가 발생했다.

특히,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확보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라 떠오르면서 명확한 검토기준

마련이 필요했다.

류길홍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검토기준은 총 12개 대분야, 70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표지 및 기본정보 ▲목차 ▲머리말 ▲서문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 및 정의 ▲본문 작성 ▲부속서 ▲참고문헌 ▲색인 ▲기타 형식 및 작성법 등이다.

본문 작성 부분에서는 제품·서비스·시험·경영시스템표준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실무자들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KS A 0001 준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돼 표준화 작업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강화로 국가 표준 경쟁력이 제고되고, 민간 단체표준의 체계화도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KS·SPS 실무 매뉴얼 개발, 검토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반영, 디지털 표준 작성 템플릿(KS Draft Template) 고도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연구 총괄 책임자는 류길홍 교수, 공동 연구자는 박윤주 교수, 김광용 교수(한국표준협회 수석연구위원/경기대 경영대학원 책임교수), 참여 연구원으로 김민정, 조유나, 이인숙 박사과정, 김길용, 김원숙, 방윤미, 최인준, 박경하 석사과정, 강혜민 석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안용섭 기자 ays@

社說

문해력 붕괴 시대, ‘토론·글쓰기·독서’ 교육 혁신이 국가 경쟁력이다

디지털 기기의 범람 속에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문해력 저하가 심각한 수위를 넘어섰다. 글자는 읽지만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질적 문맹의 속출은 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적 위기가 되고 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토론, 글쓰기, 독서 수업을 과격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이 벼랑 끝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다.

하는 기막힌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입시 위주의 현 교육 시스템에서 이러한 수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한다. 국·영·수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시급한 상황에서 독서나 토론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치스러운 학습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태도다. 기본 독해력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 풀이 기술만 익히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문해력을 갖춘 학생이 장기적으로 학습 효율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낸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

결국 해법은 교육 현장의 과감한 체질 개선에 있다. 교과서 진도 빠기에 급급한 수업 형식을 과감히 버리고, 학생들이 직접 읽고 쓰고 말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교육 과정의 중심에 배치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이를 단순히 권장할 것이 아니라, 필수 이수 단위 확대와 평가 방식 혁신으로 강제해야 한다.

문해력은 개인의 능력을 넘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이다. 더 늦기 전에 교육의 본질인 문해력 강화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문해력이 모든 학습과 사고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읽고(독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며(글쓰기), 타인과 소통하며 검증하는(토론) 과정은 지식 습득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필수 과정이다. 이 뿌리가 흔들리면 수학 문제를 읽지 못해 틀리고, 과학적 논리를 이해하지 못

더욱이 인공지능(AI)이 지식을 생산하는 시대에 단순 암기는 더 이상 무기가 될 수 없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문해력이 곧 경쟁력인 시대다. 과거의 주입식 교육 방식이 효율적이었다는 고정관념에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선관위 찾아 후보등록 완료

“부산교육의 미래전환 완성할 막중한 책임감으로 출마”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5월 14일 오전 9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대기 중인 기자들의 질문에 “부산교육의 미래전환을

제대로 이끌기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후보 등록을 했다”며,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실력이 되지 않도록 공교육의 힘으로 가족처럼 따뜻한 교육복지를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이번 선거는 누가 더 부산의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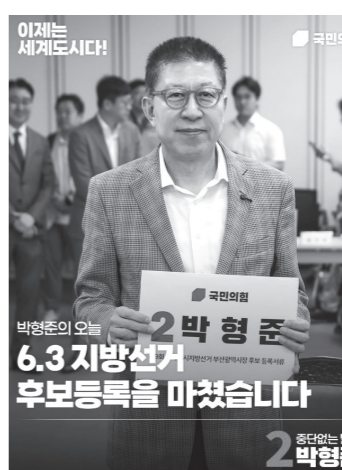
래교육을 발전시키고, 누가 더 아이들의 미래를 잘 열어갈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가리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부산교육의 미래를 위해 일 잘하고 검증된 후보, 김석준을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정윤영 기자 juy@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후보등록 선거운동 체제 돌입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완성과 미래 100년 도약 이루겠다”

시장 후보가 5월 14일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에 돌입했다.



박 후보는 후보 등록 직후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부산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라며, “보수통합의 기치 아래 낙동강 전선을 굳건히 지켜내고, 부산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도시로 반드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에 돌입한다.

이날 “민선 8기 동안 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조성과 산업·관광·금융·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며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왔다”며, “이제는 중단 없는 발전을 통해 부산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치 현안과 관련해 “정쟁과 정치보복으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사죄특검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정치는 민생안정과 국민 통합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경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핵심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및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가덕도신공항을 조기 개항해 부산의 하늘길을 열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석학과 연구인력을 유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학교와 다국어 의료 서비스, 고급 주거단지 등 국제 수준의 정주 환경을 조성해 세계 인재들이 모이는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만 외국인관광객 시대 개막’ 공약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동부산·서부산·원도심·금정산권 등 부산 전역으로 관광 거점을 다변화하고, 미식과 커피도시 브랜드, 문화·예술·축제 콘텐츠와 MICE 산업을 연계한 복합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을 확대해 관광 소비가 전통신장과 골목상권, 지역 소상공인에게까지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산형 AI 도시 조성”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박 후보는 “부산 데이터 시티를 구축해 공공·산업 데이터를 시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기반 확대를 통해 청년 미래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디지털·스마트물류·해양산업·금융산업을 연계한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부산을 아시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혁신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jh@

EdTech KOREA 2023
BM BUSINESS MODEL
최우수상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우선구매대상 “우수발명품”

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최우수상”

XingQ Table

조달청 G2B 식별번호
24823144 / 24860039

창의사고력 향상 멀티미디어 학습 시스템

- 창의사고력 향상 콘텐츠 48종
- 창의사고력 향상 테스트
- 안전교육
- 사회성 발달
- 메타인지력, 문제해결력 향상

[설치 적용 분야]

- 초등 돌봄 교실, 초등 방과후 교실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 키즈 카페, 체험관, 교육관, 과학관, 공공기관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크리플
Creative People
www.creple.co.kr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부산서 개막

장애학생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전국 장애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5월 12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렸다.

“빛의 향배, 부산! 감동의 물결 속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장애학생 선수들의 도전과 성장, 그리고 화합의 가치를 담아 전국적인 관심 속에 개최됐다.

이날 개최식에서는 개최지 부산 선수단이 힘찬 입장과 함께 대회의 시작을 알리며 큰 박수를 받았다. 선수들은 당당한 걸음으로 경기장에 들어서며 자신감과 열정을 드러냈고, 행사장은 응원과 환호로 가득 찼다.

개회식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원 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김

대현 제2차관, 부산광역시 권한대행 김경덕 행정부시장, 부산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이강국 부교육감, 선수단 및 시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1979명과 임원·관계자 2304명 등 총 4283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선수들은 육상·수영·보치아·역도·e스포츠 등 총 17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정진원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학생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더 큰 꿈을 향해 성장하는 무대”라며, “장애학생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행사장 외부에서 시민 참여형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인 ‘드림 패럴림픽’을 함께 운영하며 장애인 스포츠 인식 개선과 공감 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탤다. 황유규 기자 hog@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편집인 **한승균**
우 135-95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306호(충무로 471)

구독문의/대표번호 02-541-2000 서울본부 1899-0954
인천본부 032-429-1000 충북지사 043-292-0779 영남본부 054-273-3336
대전지사 1666-0536 울산지사 052-276-0904 호남본부 0505-629-3366
전북지사 063-226-0119 부산지사 051-711-1444 제주지사 1522-1160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도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함평골프고, KPGA 프로 4명 합격 신화

10명 예선 돌파 치열한 본선 거쳐 4명 최종 합격... 학생 선수 육성 성과 입증

전남 함평골프고등학교(교장 이천호)가 KPGA 프로 선발전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총 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학생 선수 육성의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번 KPGA 프로 선발전에서는 함평골프고 3학년 조현우, 임수현, 최승 학생과 졸업생 강지현이 최종 합격해 KPGA 프로 자격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선발전에서는 총 10명의 학생이 예선을 통과했으며, 치열한 본선을 거쳐 최종 4명이 프로 자격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에 합격한 임수현 학생은 학교 학생자치 기반 자율동아리인 '체육골프기확단'의 단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체육골프기확단은 학생들이 골프 수업과 교육환경, 진로 체험활동 등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언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학생 자치형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다.

임수현 학생은 선수 생활과 함께 학생자치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후배들과 학교 발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합격자인 조현우 학생은 외부 골프 아카데미나 개인 레슨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과 훈련 시스템에 충실히 참여하며 실력을 키워온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조현우 학생은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연습시설과 프로그램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새벽 체력 관리반부터 저녁 방과후 수업까지 꾸준히 참여하며 실력을 키울 수 있었고, 항상 학생들을 위해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신 학교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평골프고는 새벽 체력관리반 운영부터 정규 수업, 실전 중심 전공 실기, 저녁 9시까지 이어지는 방과후 프로그램까지 학생 선수 성장 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모

든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과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천호 교장은 "프로 자격 취득은 단순히 골프 실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자기 관리와 인성, 성실함이 함께 갖춰져야 가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와 선택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과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꿈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바른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글로벌 골프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평골프고등학교는 실전 중심의 특화 교육과정과 학교장배 골프대회, 전지훈련, 국제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학생 선수들의 경쟁력 향상과 진로 지원에 힘쓰고 있다.

홍석범 기자 2580news@daum.net

"중단 없는 교육혁신으로 인천의 미래 열 것"

임병구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인천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 단일후보로 추대

임병구 인천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026 인천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추대한 단일후보로서 인천 교육의 세대교체와 혁신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임병구 예비후보는 5월 7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추진위 주관 기자회견에 참석해 단일후보 추대 소감을 밝히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의 필승 결의를 다졌다.

이번 추대는 지난 5월 6일 인천YWCA에서 진행된 심층 검증 토론회와 추진위의 엄격한 정책 심사를 거쳐 이뤄진 결과다.

임 예비후보는 추대 소감을 통해 "인천교육 시민단체가 하나로 뭉쳐 저 임병구를 단일후보로 선택해주신 것은 정체된 인천교육을 다시 깨우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추진위가 모아준 통합의 에너지를 동력 삼아 반드시 본선 승리로 보답하겠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임 예비후보는 "평교사에서부터 학교 현장의 행정가까지 거친 현장 전문가로서, 아이들의 하루가 행복한 학교,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교육 행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강조했다.



반면, 임 예비후보는 5월 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도성훈 교육감의 3선 출마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임 예비후보는 "두 번이나 진보에 취해 자신의 교육철학마저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애처롭기까지 했다"라며, "아직도 정신 못차린 '윤어게인' 세력처럼 '도어게아준' 통합의 에너지를 동력 삼아 반드시 본선 승리로 보답하겠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지난 2022년 당시 회자됐던 '3선 불출마 약속'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이, 단일화 기구의 참여 제안까지 거절한 것은 인천 교육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처사"라며, "도 교육감은 권력 연장에 연연하기보다

인천시민과 교육 구성원 앞에서 8년의 공과를 정직하게 심판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임병구 후보는 앞으로 추진위와 함께 인천 전역의 교육 주체들을 만나 정책 협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 후보 캠프 관계자는 "오늘 단일화 발표를 기점으로 보수 진영의 단일화 움직임에 맞서 가장 선명하고 실력 있는 '진짜 민주진보 후보'로서의 위상을 굳히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병구 후보를 중심으로 한 단선 승리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인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전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 학부모, 도성훈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

공약 이행 성과·읽건쓰시 정책 근거로 "학생성공시대 완성할 책임자" 강조



인천지역 학부모들이 5월 14일 오후 2시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계단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부모들은 도성훈 예비후보의 공약 이행 성과와 '읽건쓰시' 정책을 근거로 도 예비후보가 학생성공시대를 완성할 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은 류재희 학부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성희·이성중·

김지원 학부모가 대표 발언에 나섰다. 참석 학부모들은 "8년의 신뢰 99.1%, 읽건쓰시로 열여가는 학생성공시대! 도성훈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지지를 공식화했다.

학부모들은 도 예비후보가 지난 임기 동안 111개 공약 가운데 108개를 완료해 공약 이행률 99.1%를 기록한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

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 최우수 SA등급을 받은 점도 신뢰 행정의 성과로 평가했다.

정성희 학부모는 학생성공버스, 무상교육 확대, 디지털 기기 보급, 결대로자람학교 운영 등을 주요 성과로 들었다. 원거리 통학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학생성공버스 57대 운영과 인천 전역 110개 학교의 결대로자람학교를 "학생이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인천형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학부모들은 또 읽기·걷기·쓰기를 결합한 읽건쓰와 AI를 결합한 읽건쓰AI를 도 예비후보의 향후 4년 비전을 설명하는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신도시·원도심 교육격차 해소, 기초교육 책임 강화, 포용교육과 교육복지 확대를 다음 과제로 제시하며, 교육을 실행 대상

으로 삼을 수 없는 만큼 검증된 행정 경험과 현장 이해가 다음 4년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용섭 기자 ays@

안민석 경기교육감 후보 등록 본격 선거 운동

"지난 100일 현장 목소리 성과로 보답... 젊은 경기교육·AI 교육환경 만들겠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5월 1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난 100일 동안 경기 전역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교육 변화의 성과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후보 등록 직후 "경기교육 회복의 간절한 소망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라며 "젊은 경기교육, 믿고 맡길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현장성과 교수의 전문성, 5선 국회의원의 추진력, 22년 교육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믿고 지지해준 성원에 성과로 보답하겠다"라며 "약속한 공약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경기교육의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겠다"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0일 동안 경기도 전역을 돌며 100차에 이상 시민과 학생, 교사, 학부모를 만났다"

라며 "아이들의 눈망울을 떠올리며 교육 현장의 고민을 치열하게 토론했고, 현장의 질박함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교육환경 조성 과 교육격차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AI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더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약자를 위한 특별 정책으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

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라며 "교사의 교육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임 직후 교육부와 국회에 협의를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경기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이 안민석의 귀와 입이 되어 달라"라며 "학생들의 꿈은 키우고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은 덜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민이 자랑스러워할 경기교육을 반드시 만들겠다"라며 "경기교육 대전환의 도구로 안민석을 선택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김병선 기자 kbs@

한원시스템



(사) 한국 실내 공기질 관리 기술협회 회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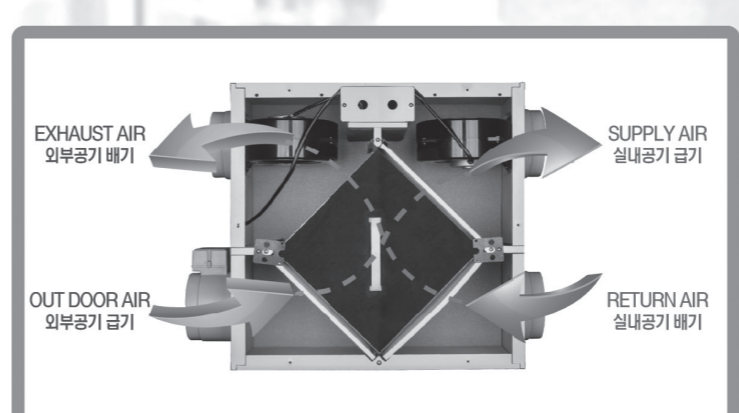
HW SYSTEM

◆ 환기장치 유지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저희 한원시스템은 다수의 학교와 관공서,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장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끝!

EXHAUST AIR
외부공기 배기



OUT DOOR AIR
외부공기 급기

SUPPLY AIR
실내공기 급기

RETURN AIR
실내공기 배기

전열교환기(환기장치)
필터교체로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세요!

환기장치유지/관리 이제 전문기업에 맡기세요!

문의전화 : 1577-2036

과학으로 탐구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다

염산초,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융합 체험 캠프' 운영

염산초등학교(교장 신재영)는 지난 4월 30일 교내 천연잔디운동장과 봉덕관에서 전교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6 염산초 융합 체험 캠프'를 운영했다.



과학 탐구와 메이커 체험, 협력 체육활동, 공감 소통 프로그램을 하루 안에 유기적으로 담아낸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은 물론 공동체 의식과 사회·정서 역량까지 함께 키워낸 염산초만의 교육공동체형 행복교육 실천의 장이 됐다.

학생들은 PS필름 굿즈 만들기, 생각도장 만들기, 소마큐브 만들기, 냄비받침대 만들기, 슬라이드 만들기, 바다유리 그림책 만들기, 전기자동차 만들기, 연필꽂이 만들기 등 다채로운 메이커 활동에 몰입하며 과학 원리를 직접 탐색했다. 체험 부스마다 아이들의 질문과 탄성이 이어졌고, 완성품을 손에 쥔 학생들의 얼굴에는 성취의 미소가 번졌다. 교직원들도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에 함께 참여해 학생과 교사가 나란히 배우는 즐거움을 나눴다.

이웃, 터널통과 달리기, 버블공 굴리기, 낙하산 달리기, 줄다리기, 계주, OX퀴즈, 원반캐처왕뽑기 등 다양한 협력 경기에 참여했다. 아이들의 힘찬 함성과 학부모들의 열띤 응원, 마을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며 운동장은 하루 종일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다.

저녁에는 봉덕관에서 '공감 한끼' 소통 바비큐 파티가 이어졌다. 6남매 모듬별로 학생과 가족, 교직원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하루 활동의 소감을 자연스럽게 나누었다.

이어 진행된 '함께 나누는 서클'에서는 몸놀이기로 분위기를 풀고, 감사 표현하기와 소망 나누기, 경청과 존중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친구와 가족에게 미치지 못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사랑의 말을 건넸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속마음을 가까이에서 듣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

염산초는 이번 융합 체험 캠프를 통해 탐구 중심의 과학·발명 활동과 협력 체육, 공감 식사, 사회 정서 프로그램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학생들의 지적 성장과 신체 활동, 정서 회복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형 학교교육과정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학교는 행사 후 학생·학부모·교직원 만족도 조사와 운영 협의를 통해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염산초만의 특색 있는 융합 체험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신재영 교장은 "이번 융합 체험 캠프는 학생들이 탐구하며 생각의 폭을 넓히고, 협력하며 몸을 움직이고, 공감하며 마음을 성장시키는 살아 있는 배움의 현장이었다"라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염산초 행복교육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배우고 함께 웃는 교육활동을 지속해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성석 기자 2580news@daum.net



태권도 세계화의 상징, 김운용 정신 다시 살아나다

제7회 김운용컵 국제오픈(G1) 태권도대회 7월 24일~28일 서울서 개최

태권도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이끌며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사의 새 지평을 열었던故김운용 총재의 정신이 다시 서울에서 살아난다. 김운용스포츠위원회와 국기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7회 김운용컵 국제오픈(G1) 태권도대회가 오는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고 5월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WT) 공인 G1 등급 국제대회로 치러지며, 세계 각국 정상급 선수와 지도자들이 대거 참가해 겨루기와 품새, 격파 시범 등 수준 높은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태권도를 세계인의 스포츠로 성장시킨故김운용 총재의 업적과 철학을 나누는 뜻깊은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운용스포츠위원회 최재준 위원장은 "제7회 김운용컵 국제오픈(G1) 태권도대회는 세계 태권도인들이 하나 되어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국제 스포츠 축제"라며, "참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태권도를 단순한 무예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자산이자 평화와 화합의 글로벌 언어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1988 서울올림픽과 2000 시드니 올림픽을 거치며 태권도가 세계 스포츠 무대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운용 총재의 치열한 외교력과 불굴의 추진력이 있었다.

세계 태권도인들은 지금도 그를 '태권도 세계화의 개척자'이자 '올림픽 태권도의 아버지'로 기억하

고 있다. 김운용스포츠위원회 최재준 위원장은 "제7회 김운용컵 국제오픈(G1) 태권도대회는 세계 태권도인들이 하나 되어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국제 스포츠 축제"라며, "참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G1 국제대회를 통해 국기(國技) 태권도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도전·인내·존중의 가치를 전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만들어 가겠다"며, "세계 속 태권도의 중심도시 서울이 다시 한 번 국제 스포츠 외교와 문화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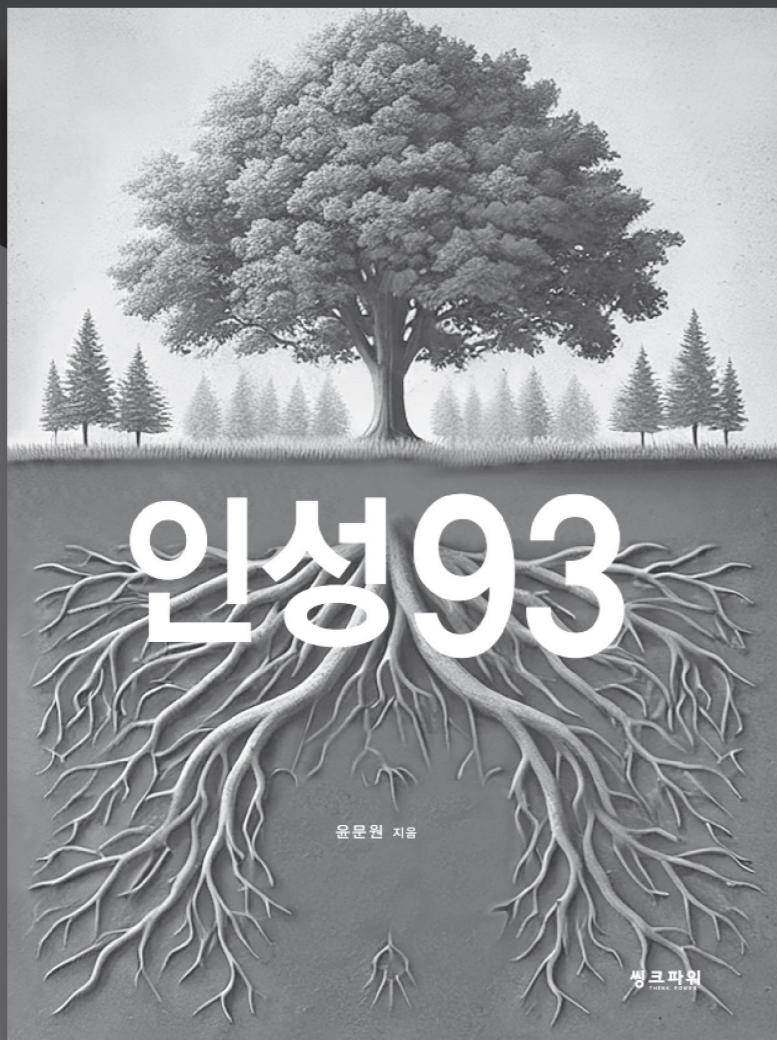
이번 대회는 서울특별시 체육회와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 등의 지원 속에 진행되며, 세계 각국 선수단과 해외 관계자들의 방문으로 국제 스포츠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 국제 세미나와 문화교류 프로그램, 태권도 시범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될 예정으로, 스포츠와 문화가 결합된 글로벌 태권도 축제로서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유기 기자 hog@

93가지 인성 덕목을 담은 삶의 지침서

인성교재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저자 **윤문원**
인성교육전문가
중·고교과서 다수게재

출판사 : 씽크파워 (440p) 정가 : 24,000원
쿠랑,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전국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가능

단체구입문의 : 010-7401-9855 유기성 본부장
(학교도서관 및 공공기관 도서구입관련)

인성교육진흥법관련조항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및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 시선으로 북구 미래 정책 아이디어 제안

부산북구청소년문화의집, 지방선거 앞두고 정책제안 퍼실리테이션 교육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진로·성장 분야에서는 ▲지역 기반 실질적이고 폭넓은 진로체험의 기회 제공 ▲주말 청소년 여가시간 확보를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의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소년문화의 집(관장 김강임)은 지난 5월 9일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연합 참여기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책제안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북구의 미래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는 참여형 활동으로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의견 나눈을 넘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시민 역할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북구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의 주역"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북구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참여 활동성화를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정책제안 활동, 지역 연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pes@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 “서울교육 미래 준비”

후보 등록 후 미래 비전 제시… “학교 현장 작은 목소리까지 담겠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5월 14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갈등을 넘어 책임을 넘어 서울교육의 미래로 나아가겠다”라며 서울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오늘은 서울교육의 다음 4년과 우리 학생들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출발선에 다시 서는 날”이라며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 과정과 관련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라며 “치열한 경쟁과 갈등도 있었지만 서울교육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또 “이제 경선은 끝났다”라며 “민주진보 진영이 힘을 모아 서울교육을 지키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최근 박노현·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지지와 격

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혁신교육의 씨앗을 뿌린 선배들의 헌신과 학교 민주주의를 지켜온 현장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온 서울교육의 역사를 반드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 낮게 가고, 더 넓게 가고, 더 단단하게 가겠다”라며 “학교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품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교육철학과 검증된 실천의 힘으로 서울교육의 미래를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교육은 사람을 향하는 실천”이라며 “더 지혜로운 눈길과 따뜻한 손길, 낮은 곳을 향하는 발걸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교사가 혼자 감당하는 학교 끝내겠다”

안민석·정근식 교육감 후보, 스승의 날 맞아 교권보호 공동 공약 발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제45회 스승의 날인 5월 15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함께 교권보호와 교사 권리 회복을 위한 공동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교사가 혼자 감당하는 학교를 끝내고 교육감과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경기교육으로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스승의 날이 감사와 축하의 날이어야 하지만 이제는 민원과 소송, 과도한 행정업무, 동료의 빈자리를 떠돌리는 날이 되고 있다”라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커지고 있지만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사의 절반이 근무하는 경기와 서울 교육청의 교육감 후보로서 교사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함께 드리고자 한다”라며 “경기와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가 전국의 기준이 되도록 교권보호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두 후보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의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첫째는 ‘가르칠 권리’ 회복이다. 두 후보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전담기구를 상시 운영하고, 법률·심리·행정 지원이 즉시 가



능한 종합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교원의 시민권’ 회복이다. 두 후보는 “교사는 교육 전문가이자 시민”이라며 “학교 안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의견 표명과 정책 참여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서울교육청이 교사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셋째는 ‘보호받을 권리’ 회복이다. 두 후보는 교직수당 현실

화와 처우 개선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교원 마음건강 회복 휴가제와 보결수업 지원체계, 학교 내 회복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특히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면책권 실현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취임 즉시 추진하고 법과 제도가 필요한 부분은 교육감협의회와 국회를 통해 끝까지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 한 명이 무너지면 교실과 학생들도 함께 흔들린다”라며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교육청, 학교 관리자 대상 통합교육 리더십 연수

유·초·중·고 관리자 2000여 명 참여 “포용적 학교문화 조성”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은 5월 14일과 28일 양일간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일반학교 관리자 통합교육 리더십 혁신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장애학생 인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일반학교 관리자의 실천적 리더십과 현장 문제 해결 역량을 높

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학교 현장의 접근성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 실시간 줌(ZOOM) 방식을 병행해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감 공연 △정책 안내 △법률 특강 △토론펀터 순으로 운영된다.

1·2부에서는 지적장애 첼리스트 배병준의 클래식 공연을 통해 장애 공감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안 정책배리어프리’, ‘더공감교실’, ‘서울공정적행동지원(서울PBS)’ 등 서울형 통합교육 정책을 공유

한다.

이어 3·4부에서는 황태륜 변호사(법무법인 화답)가 장애학생 인권과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주제로 실효성 있는 법률 가이드를 제공한다.

또한 전문가와 유·초·중·고 학교 관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펀터를 통해 현장의 실천 사례와 문제 해결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천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은 학교 현장

을 이끄는 관리자의 포용적 리더십에서 시작된다”라며 “학생과 일반교사, 특수교사 모두가 상호 존중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경기교육청,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현장 소통 강화

용인·양평·광주 방문 공급 전 과정 점검… 생산·유통 관계자와 간담회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14일 용인과 양평, 광주 지역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현장을 방문해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교육청 학교급식보급과와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유통 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급식 운영 과정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마크 축산물 가공업체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농산물 전처리 시설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특히 식재료가 생산지에서 학교까지 공급되는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공급체계 운영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또한 식재료 생산·유통 과정의 공급 안정성과 위생·품질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학교급식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병선 기자 kbs@

배움의 기쁨 넘어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문해교육 학습자 영화 관람 나들이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은 5월 14일 서울 대학로 CJ CGV 7관에서 문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봄날의 정취를 담은 시네마 여정’ 문화 나들이 영화 관람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중부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브랜드인 ‘중부 다(多)·가(加)·온(溫) 평생교육’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교육소외계층과 신문해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정서적 안정과 생활 활

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날 문해교육 학습자들은 대학로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문화 체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영화 관람 후에는 감상을 나누며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이어갔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습자는 “평소 영화관에 올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게 돼 정말 기뻐다”라며 “영화를 보며 많이 웃었고 서로 이야기를 나

누며 공감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습자는 “배우는 즐거움도 크지만 오늘처럼 함께 밖에 나와 문화를 누리는 경험이 큰 힘이 된다”라며 “따뜻한 봄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 마음까지 환해진 느낌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도규 교육장은 “문해교육 학습자들이 배움의 기쁨뿐 아니라 풍요로운 문화 경험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학습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따뜻하고 참여가 자유로운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지사 및 대리점 모집

티에프메디칼 (주) 점주님만의 혜택

- 높은 마진율
- 노후대비
- 확 줄어든 재고부담
- 홍보 및 행정지원

4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을 살리는 건 그 어떤 수술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티에프메디칼과 점주님들입니다.

관심 있으신 미래 점주님들은 아래로 연락처로 신청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 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생명을 살리는 시간 단 4분

BIOTA-3 수동식 심폐소생기

전라남도 213개 (초·중·고) 학교 시범 설치

교육시설 (초·중·고등학교)
전남 구례간문 초등학교, 담양창평중학교 외

복지시설 / 경로당
서울강동 종합사회복지관, 중평군 신동리 경로당

지자체 / 관공서
단양군청 산림복지과, 진해 군항제 외

COMPANY : 티에프메디칼(주)
대표번호 : 1899-0971
Tel : 031)941-0970
Fax : 031)949-8445
ADDRESS :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39(우. 10882)
E-MAIL : tfmedical@naver.com

Q 당신은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A 수동식 심폐소생기(Biota-3)는 전문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티에프메디칼(주)

자연 속 치유 통한 교직원 재충전 기회 확대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5월~10월까지 '숲(자연) 치유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관장 한근수)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숲(자연)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5월 6일 밝혔다.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숙박형(머무는 숲)과 당일형(하루 숲)을 비롯해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직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숙박형 프로그램은 숲 체험, 도보여행(트레킹), 싱잉볼 명상 등으로 1박2일 또는 2박3일 일정으로 연12회, 4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당일형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 수목원에서 숲 해설 및 체험이 연중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전문 심

리상담을 통해 숲(자연) 치유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신청은 '마음건강사업 온라인심리검사(온라인 마음검진)' 완료 후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누리집(www.gew.kr)을 통해 가능하다.

한근수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

지센터 관장은 "교직원들이 자연 속 쉼 프로그램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ssm@



시흥교육지원청, 미래과학·융합교육 활성화

갯골생태공원서 가족과 함께하는 '2026 시흥 천체관측 체험 활동' 개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2일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2026 시흥 천체 관측 체험 활동-별이 별을 만나다!'를 개최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미래과학·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3차에 걸쳐 시흥 미래과학·융합 페스티벌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2026 시흥 미래과학·융합 페스티벌의 두 번째 행사로 관내 학생 및 학부모 약 200여명(60가족)이 참여했고, 천문 강의와 천체관측 활동이 결합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경기도 중등 지구과학교육연구회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천문 강의를 통해 별자리와 우주에 대한 기본 개념을 쉽고 흥미롭

게 익힐 수 있도록 운영됐다. 특히 계절별 별자리와 행성, 달, 성단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실제 천체관측은 어려웠지만, 망원경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달, 목성, 성단 등을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니 망원경 만들기와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이 우주를 보다 친숙하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족 단위 운영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과학 활동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주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며 탐구심을 확장하도록 했다.

이번 체험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구름이 많은 하늘이 아쉬웠지만, 흥미로운 천문 강의를 통해 우주의 신비로움을 느끼며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망원경의 구조와 원리를 배워 더욱 재미있었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체험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채열희 교육장은 "이번 천체관측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직접 체험으로 확장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과학 활동을 통해 과학을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중심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미래형 융합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상민 기자 ssm@

"어린이날 축하해"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등굣길

수원 효성초, 학부모·학생봉사단과 함께한 '등굣길 맞이' 응원 행사

지난 5월 4일 경기도 수원 효성초등학교(교장 정용근) 교문이 평소보다 훨씬 활기찬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어린이날을 맞이해 학부모회와 학생봉사단이 협력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는 행사를 열었다.

효성초 학부모들은 알록달록한 풍선을 들고 따뜻한 격려의 문구를 외치며 어린이날의 주인공인 학생 한명 한명의 눈을 맞추고 등굣길을 응원했다.

교내 한쪽에 마련한 사진 촬영 공간에서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사진에 담았고, 교내 가득 울려 퍼진 '어린이날 노래'



와 경쾌한 동요는 어린이날 기념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학생봉사단은 직접 제작한 친구사랑 문구를 들고 등굣길 학생들

을 맞이하며 배려와 존중이 바탕이 된 즐거운 학교생활을 강조하고 친구 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행사의 의

미를 더했다.

깜짝 행사를 맞이한 학생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반겨주셔서 어린이날 선물 받은 기분이다. 학교 오는 길이 정말 즐거웠다"라고 말했다.

정용근 교장은 "학교와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가 하나가 돼 학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교육 공동체가 협력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힘을 모은 교육 구성원들에게 학교 공동체의 소중함과 협력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다. 신상민 기자 ssm@

신상민 기자 ssm@

AI·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외국어 교육 환경 조성

안산교육지원청, 경기미래형 영어의사소통중심 수업 및 평가 모형 프로그램 연수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진)은 교원의 영어 수업 설계 및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29일, 본오중학교(교장 송정심)에서 '2026 LAON 선도학교 중심 CLASS UP 프로그램 연수'를 실시했다.

CLASS UP 프로그램은 경기도 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영어 의사소통 중심 수업 및 평가 모형을, 학생 맞춤형 수업·평가 자료 제공과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다. 또한 학생들은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

이번 연수는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허영주 교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실습 중심으로 운영됐다. 안산 LAON 선도학교 3개교 담당자를 비롯해 관내 총 11개교 교사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 속에 이루어



졌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LAON 선도학교 거점 운영을 기반으로 CLASS UP 프로그램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고, AI·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외국어 교육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수진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교원이 직접 참여하고 실습을 통해 배우는 과정 중심 연수로,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안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형 외국어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상민 기자 ssm@

성남수정초, 썩 향기에 담긴 '봄의 추억'을 빛다

지역주민 참여 학교 도서관 프로그램 동화 읽기·썩 개떡 만들기 행사 성황



경기도 성남수정초등학교(교장 배정심)는 지난 4월 30일 지역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도서관 프로그램'의 첫 번째 회기인 '썩을 소재로 한 동화 읽기와 썩개떡 만들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 환경이

다소 취약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교 도서관을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독서 교육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그림책 '할머니, 어디 가요? 썩 뜯으러 간다!'를 함께 읽는 것으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손에 직접 썩을 비벼 향기를 맡

아보는 '썩 내음 맡기' 활동을 통해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썩 향기를 맡으니 어릴 적 직접 썩을 캐서 썩부리와 썩떡을 만들어 먹던 옛 기억이 떠올라 정말 행복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본격적인 만들기 시간에는 썩개떡에 깨와 동부를 넣고, 고명을 얹어 저마다의 솜씨로 예쁘게 떡을 빚어 서로의 결과물을 맞보는 정겨운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는 직접 재배한 싱싱한 채소와 선물을 준비해 떡을 정성껏 꾸민 참여자에게 나누어 드리고, 모든 참가자가 두 손 가득 썩 향을 담아 즐겁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배려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신상민 기자 ssm@

PMZ

Pozzalan Mat Zone

평균 98.2%, 원적외선 방사율 90.4%의 친환경 매트로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포졸란매트존입니다.

서귀포시
'치유의 숲' 조성

의정부시
'맨발로(路) 조성

용인시
'여성길(Earthing) 조성

▶ 4줄란 매트길의 특성



1. 원적외선 방사
세포조직을 활성화시켜
온열효과로 인해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 향균
포졸란 분말을 표면에
도포하여 불필요한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해준다.



3. 탈취
외부환경으로부터 차단막
역할을 하여 기존제품 대비
부식속도가 느리다.



4. 친환경성
천연소재로서 자연환경과
이질감 없는 경관의 연출이
가능하고 수요가 높다.

UARU (주)우아르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교산동막길 108-36 T. 033-808-7013 www.uaru.co.kr

화순 이양초, 화순 의(義)를 배우고 실천하다

‘화순 의병사 이야기’와 쌍봉사 문화유적 체험학습으로 배우는 우리 고장 역사

전남 화순 이양초등학교(교장 김복선)는 지난 5월 7일부터 8일까지 화순교육지원청의 ‘화순 의(義)를 살리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고장 화순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는 교육활동을 펼쳤다.

먼저 5월 7일 학교로 찾아가는 역사 교육 ‘화순 의병사 이야기’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화순 지역의 의병 활동과 나라를 위해 애쓴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고장에 담긴 의(義)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의 역사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풀어 주어, 화순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다음 날인 8일에는 쌍봉사에서 문화유적 체험학습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화순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인 쌍봉사를 직접 찾아 사찰에 담긴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살펴보았다. 직접 보고 듣고 느



기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이양골 지사탐(지구 사랑 탐사대) 활동의 일환으로 줄기 활동에도 참여했다. 집게와 봉투를 들고 학교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주운 학생들은 작은 실천의 의미를 몸소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양초 6학년 학생은 “줄기 활동을 하면서 작은 행동이 주변을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 쓰레기를 주우니 우리 학교와 마을을 더 아끼고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화순 의병의 정신과 지역 문화

유산의 가치를 익히는 한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태도의 중요성도 함께 느꼈다.

역사교육과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 경험하며 우리 고장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키우고, 배움을 행동으로 이어 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김복선 교장은 “이번 지역을 담은 역사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우리 고장 화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는 소중한 활동이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 교육활동을 계속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화순 의(義)를 살리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친근하게 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교육활동으로 마무리됐다.

노영식 기자 2580news@daum.net

곡성 오산초, 교육장과 공감소통 ‘너나들이’ 운영

학교 구성원·지역 교육공동체 함께 학교 브랜드 교육 추진 현황 등 논의

전남 곡성 오산초등학교(교장 정성룡)는 지난 5월 11일 학교 도서관에서 교육장 공감소통 ‘너나들이’를 운영하고 학교 교육 발전 방향과 브랜드 교육 추진 방안 등에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는 곡성교육지원청 심치숙 교육장을 비롯해 곡성교육지원청 김용현 과장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교직원, 학생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해 교육공동체 중심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번 너나들이에서는 2025학년도 너나들이 반영 내용과 학교시설 상황을 점검하고, 2026학년도 학교 브랜드(특색화) 교육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교육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오산초등학교 브랜드인 ‘동그라미 합창으로 빛나는 오산의 하모니’ 추진 과제와 세부 운영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학생 중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교육 현안 청취와 의견 수렴 시간에는 교직원과 학부모회에 제안한 4가지 건의 사항에 대해 협의가 진행됐으며,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교육공동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해 학교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학생들의 문화예술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브랜드 교육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협력과 소통 능력을 기르는 교육활동으로 평가받았다.

정성룡 교장은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공감과 소통 중심의 교육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브랜드 교육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채구 기자 2580news@daum.net

인천 연수구 “물길과 숲길 따라, 청년 새로운 출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카누 체험·숲 활동 연계 운영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4월 29일 ‘2026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장기·중기 과정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인 카누 체험과 숲체험 활동을 연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직단계 상단에 있거나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환기와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재도전에 대한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연수구 송도 달빛공원 내 연수 카누연맹 훈련장에서 진행됐으며, 참여 청년들은 전문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카누 기본 교육을 받은 뒤 직접 수상 활동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신체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자신감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숲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자연 속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여자들은 숲속에서의 신체활동과 협력 활동을 통해 또래 간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연결감을 높였으며, 자연물을 활용한 표현 활동을 통해 자기 이해와 자기표현 능력을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가자들은 카누 체험과

숲속 활동 모두에서 팀 단위로 협력하며 소통하는 과정을 경험했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쉽’과 ‘도전’을 균형 있게 경험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 참여자는 “처음 접하는 카누 활동은 긴장됐지만 함께 호흡을

맞추며 나아가는 과정이 인상 깊었고, 숲체험을 통해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며, “작은 도전이지만 해냈다는 경험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심리 회복과 동기 부여를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운영 중인 (주)채움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 협력해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채용박람회, 취업교육 컨설팅, 기업탐방형 일일체험, 취업캠프·특강, 글로벌 문화교류, 어학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채움HRD는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심리 안정, 역량 개발, 현장 경험, 지속가능한 고용으로 이어지는 통합 경로를 설계·운영하며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하고 있다.

안용섭 기자 ays@

구분희 반려詩選

유모차 없는 거리

저출산 시대,
유모차 지나가면
낯선 반가움.

답답함은
세상 탓일까,
우리 탓인가.

그 안엔 아이 없이
선홍기 바람에
흔들리는 강아지.

유모차 없는 거리,
우월
무열 기다리나.

대형 매장 아이 코너엔
강아지, 고양이
반짝이는 무대.

아이 키우기 어려운 세상,
출산 정재는
바람에 날리는 종잇장.

결혼도 무리도 뒷전,



구분희
◇ 前인천국제고등학교 교장

김홍제의 목요칼럼

차트는 읽지만 삶은 읽지 못하는 시대

“미래를 살아갈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이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차트를 읽는 데는 민감하지만 삶의 방향을 읽는 데는 서툴러지고 있다. 투자 광풍과 가짜 정보가 범람하는 이유에 한국 교육의 책임도 있다고 나는 믿는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보다 ‘따라가는 법’에 더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주시 열풍은 결국 돈에 대한 욕망만이 아니라 양극화와 불안한 시대가 만들어낸 집단 심리의 거울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모든 시대의 광풍은 늘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튜립 버블,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암호화폐 열풍도 당시에는 모두 새로운 질서와 미래의 약속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끝내 남는 것은 본질이었다.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는 이성적 힘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 공식은 배웠지만 자본의 원리는 배우지

못했다. 문제를 푸는 훈련은 반복했지만 위험을 판단하는 능력은 익히지 못했다. 객관식 시험에 길들여진 사회는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을 만든다. 삶은 보기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잔인한 진실은 세상이 객관식 시험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라. 반도체와 인공지능, 전력과 에너지 전환 산업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그것들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먼저 반영하고 있다. 상승하는 자산의 본질은 ‘변화에 대한 감각’에 있다. 전력 기업의 상승은 에너지 질서의 전환을 예고하고 인공지능 기업의 부상은 인간의 노동과 사고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은 미래의 방향을 읽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은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주식은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교육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낼 인간을 길러내는 일이어야 한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교육보다 시장의 움직임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 하루에도 수십 번 주가를 확인하면서도 정작 어떤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무관심하다. 자본은 사회를 움직일 수 있지만 인간의 품격까지 만들어주는 것은 못한다.

찰스 다윈은 ‘살아남는 존재는 가장 강한 종도, 가장 영리한 종도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라고 말했다. 지금 교육에 필요한 것도 단순한 제도의 개편이 아니다. 교육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다. 질문할 수 있는 인간, 의심할 수 있는 인간,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일이다. 교육이 관심

을 가져야 할 부분은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인간’이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유행하는 답보다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힘은 긴 독서와 토론, 예술과 철학, 그리고 혼자 사유하는 시간 속에서 단련된다.

속도의 시대일수록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판단이 아니라 깊은 내면이다. 차트를 읽는 능력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삶의 방향까지 대신 결정해 주지는 못한다. 결국 미래를 살아갈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이다. 미래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학생에게 교육에서 그 힘을 길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김홍제
◇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문의: 010.3398.7325
010.5204.8271

bLINK
주식회사 베스트링크
S2B 물품번호
2025 0131 055 1212
2025 0131 055 1061
2025 0131 055 0333

최고의 장비와 최저의 비용,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차별화된 행사를 약속 드립니다”

음향
▪ 이벤트 음향
▪ 소형 음향
▪ 중형 음향
▪ 대형 음향

조명
▪ 이벤트 조명
▪ 중소형 무대조명
▪ 대형조명

무대
▪ 이벤트 무대
▪ 소형 무대
▪ 중형 무대
▪ 대형 무대

영상
▪ 빔 프로젝터
▪ LED 영상
▪ 촬영 및 중계

인천 계산여고, 학생 진로·진학 지원 강화

美유타대 아시아캠퍼스와 국제교육 협력 MOU 체결... 해외 대학 연계 기회 확대

인천 계산여자고등학교(교장 이현주)는 5월 13일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와 국제교육 협력 및 학생 진로·진학 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 운영과 고교학점제 확대에 따른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글로벌 교육 경험과 국제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에서 진행됐으며, 계산여고에서는 교장, 교감, IB 코디네이터, 진로진학부장이 참석했고,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측에서는 대표(그레고리 힐)와 입학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우수 학생 장학금 지원 ▲ 국제 대학 진학 정보 제공 ▲ 학생·학부모 대상 입학 설명회 ▲ 영어 캠프 및 멘토링 프로그램 ▲ 특별 강연 및 학사 교류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계산여



고 학생 중 우수 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와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장학금 선발, 장학금 혜택 등과 같은 실질적으로 입학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이현주 교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세계와 연결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계산여고에서 성실히 교육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더 양질의 진로 선택 기회와 진학의 길을 열어 주고 싶다"고 밝혔다.

계산여고는 현재 IB 월드스쿨 인증을 준비 중인 후보학교로, 평소에도 학생 중심 탐구수업과 개인 기반 학습, 성찰 중심 평가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 IB 학급은 1개 학급만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이 일부 학생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머무르지 않도록 다른 반 학생들에게도 IB의 핵심 가치인 탐구(inquiry), 성찰(reflection), 국제적 사고(international-mindedness), 자기주도성

(student agency)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1학년은 'UTOPIA', 2학년은 'KEE'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팀을 구성해 탐구·실천·성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IB의 CAS(Creativity·Activity·Service), EE(Extended Essay)와 연계되는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활동이다. 계산여고는 IB 교육이 공교육 안에서 어떻게 학생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IB DP 선택 학생뿐 아니라 전교생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글로벌 역량과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 및 융합 탐구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와의 협약을 통해 국제적 진로 탐색 및 해외 대학 연계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송의초, 몸과 마음이 함께 자라다

학년별 체육활동의 날 운영... 학생들 협동심·공동체 의식 향상 도모

인천송의초등학교(교장 고준명)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5월 7일부터 15일까지 학년별 체육활동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활기찬 학교생활의 추억을 선물하고,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학교생활의 주인공으로 마음껏 뛰고 웃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인천송의초등학교는 5월 7일 6학년을 시작으로, 5월 8일 3학년, 5월 12일 5학년 체육활동의 날을 운영했다. 이어 5월 13일에는 4학년, 5월 14일에는 2학년, 5월 15일에는 1학년 체육활동의 날을 운영했다.

학년별 일정에 따라 행사를 나눠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학년 특성에 맞는 체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체육활동의 날은 학년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신체활동과 놀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학생들이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이어달리기, 협동 경기, 전통놀이, 뉴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친구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미 체육활동의 날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기 중 승패를 넘어 친



구를 배려하고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여 줬다.

팀별 응원과 협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급의 단합과 소속감을 높였고,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응원 소리로 가득 찼다.

특히, 각 학년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을 운영해 학생들이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건강한 생활 습관과 바른 스포츠맨십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학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난이도와 방법을 조정해, 운동 기능에 자신이 있는 학생뿐 아니라 평소 체육활동에 부담을 느꼈던 학생들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활동의 날에 참여한 한 3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응원하

고 게임해서 정말 재미있었다"며 "다음에도 또 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은 "이어달리기에서 우리 반 친구들이 서로 격려해서 기억에 남는다"라며 즐거웠던 순간을 이야기했다.

행사 운영에 참여한 한 교사는 "학생들이 경쟁보다 함께 즐기고 서로 응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며, "몸을 움직이며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경험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감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송의초등학교는 남은 학년별 체육활동의 날도 안전하게 운영하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이 학교생활의 주인공으로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중심 교육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만수고, 교육부 선정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

학생 개개인 학습역량 강화 위해 스터디 공간 조성 맞춤형 학습관리 본격화

인천만수고등학교(교장 박종락)는 지난 4월 1일 학생 개개인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교육부·EBS 공모사업인 '자기주도학습센터'에 선정된 이후 추진된 것으로, 고교 학점제 정착과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핵심 교육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만수고는 2025년 5월 공모 사업에 지원해 같은 해 9월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학교 내 운영 센터로 최종 선정됐으며, 이후 설명회 및 현장 컨설팅을 거쳐 2026년 1~2월 을 통해 스터디카페형 학습 공간인 '포커스 스터디 I·II'를 구축했다. 본 센터는 교내 3층에 위치해 안정적이고 집중도 높은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자기주도학습센터에는 총 60명

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 개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학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4월 3일 실시된 표준화 심리검사를 시작으로, 전공 탐색 검사와 자기주도학습 검사, 그리고 AI 기반 'EBS' 공도사업인 '자기주도학습센터'에 선정된 이후 추진된 것으로, 고교 학점제 정착과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핵심 교육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중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고, 이후 매일 한 과목씩 지속적인 진단 평가를 실시해 학습 흐름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코디네이터 교사 1인이 학생 5명 내외를 담당해 맞춤형 학습 코칭을 제공한다. 주간 상담을 통해 학습 이력을 기록·관리하고, 학생별 학습 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E-book 구독권 및 서류형

문제집 지원을 통해 학습 자원을 확대하고, 매일 밤에는 상담 및 출결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 개선 협의를 실시한다.

자기주도학습센터는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운영된다. 학기 중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방과 후부터 21시까지 운영해 충분한 학습 시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도 프로그램을 지속한다. 또한 운영 시간에는 학습 코디네이터 교사가 상주해 학습 관리와 안전 지도를 병행한다. 센터 운영에는 월 6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학생은 "혼자 공부할 때보다 계획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라고 소감을 전



했다. 또 다른 학생은 "조용하고 집중이 잘 되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박종락 교장은 "자기주도학습센터는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성장해 나가는 힘을 기르는 핵심 공간"이라며, "AI 및 EBS 기반 진단과 교사의 밀착 코칭을 결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고교학점제 시대에 부합하는 학습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송명초, 학부모와 함께하는 과학축제

학년별 발달 수준 고려 맞춤형 탐구 프로그램 운영

인천송명초등학교(교장 최은미)는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송명의 푸른 꿈, 과학 엔진을 깨워라!'라는 슬로건 아래 학부모와 함께하는 '2026 송명 과학축제'를 운영했다.

이번 축제는 학생들에게 체험 중심의 과학 활동을 통해 과학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고 즐겁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년별 발달 수준을 고려해 차별화된 맞춤형 탐구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부모 67명이 교육기부 운영요원으로 참여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축제로 기획됐다. 학부모들은 사전에 실험 원리

교육 및 안전 교육을 이수한 뒤 각 부스의 운영 및 학생 지도를 담당하며 행사의 내실을 기했다.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학생들을 지도한 학부모들은 "짧은 시간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성이 필요함을 느꼈다"며, "매일 현장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축제에 참여한 6학년 최아인 학생은 "교실에서 책으로만 배우던 과학 원리를 홀로그램 만들기나 에어로켓 발사처럼 재미있는 실험으로 직접 체험하니 훨씬 이해가 잘 됐다"며, "특히 내가 만든 홀로

그램이 허공에 입체적으로 떠 있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고, 앞으로 과학 시간이 더 기다려질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은미 교장은 "이번 과학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과학에 대한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 탐구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인천송명초등학교는 이번 축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송명 과학축제'가 학교의 고유한 전통으로 자리 잡고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 속에서 함께 행복하게 성장하는 역동적인 학교 문화를 가꿔 나갈 방침이다.

안용섭 기자 ays@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국무총리상 표창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 정부 조달청장 표창 | 산업융합선도 기업 표창 | 녹색인증 유공포상

APEC 2025 정상회의장 LED 전광판 구축 기업

실내 LED 전광판 | 옥외 LED 전광판 | LED 전자현수막 | 스탠드 LED 전광판

전국 초·중·고 구축 건수 1위 주식회사 케이시스

APEC 2025 정상회의장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옥외 LED 전광판

조달청 우수제품 | 조달청 혁신제품 | 성능인증 | GS인증 1등급 | 녹색기술인증 | 친환경인증 | 환경표지인증 | 산업융합혁신제품 | 우수발명품

조달청 LED 전광판 계약·납품·구축 건수 3년 연속 1위

국내 유일 미세피치 LED 전광판 제조 기업



'최첨단 SMT라인 보유'
미세피치 전광판 생산



국내 최초 안내전광판
'조달청 우수·혁신제품' 지정



공공기관·관공서·학교
'전국 1,700건 이상 구축'



SMT 라인



아웃도어 라인



150종 이상의 빛나는
'수상인증 특허' 보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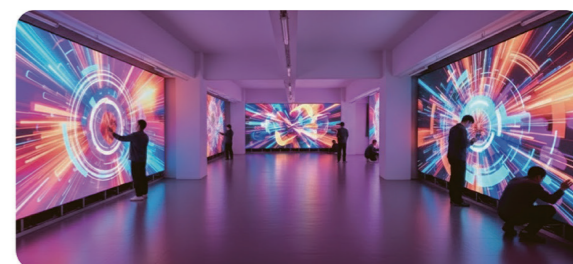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계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글로벌 컨트롤러
'노바스타 공식
전략적 기술 파트너'



어셈블리 라인



에이징룸

학교 설치 레퍼런스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세일고등학교 2층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대강당



온양한울중·고등학교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시청각실



천안고등학교 시청각실



용인 대지초등학교 옥외



장성백암중학교 옥외



여의도고등학교 입구



망미초등학교 본관 입구



사송초등학교 본관 입구



삼성여자고등학교 강당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대강당



홍성 홍북초등학교 입구



대전대성여자중학교 실내 스탠드전광판



사직여자고등학교 LED배너

[전국 및 글로벌 지사·공장·물류]

KSYS
대표전화
1600 - 6187

부산 |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17 더케이타워 1F~6F
서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82 평촌 금강펜테리움 IT타워 411호
대전 | 대전 유성구 복용동로 43 도안더리브스니치너 749호
광주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마루힐IBC지식산업센터 A동 1301-B호
제주 | 제주시 서문로 33

미국 | 732 S 6TH ST, STE R, Las Vegas, NV 89101, USA
공장 |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9 (모라동) 백양스마트밸리 B1, 1F, 5F, 6F
부산 물류센터 | 부산 남구 문현로 13-1 케이시스 물류창고
서울 물류센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평촌 금강펜테리움 IT타워 B110호

부산 6개 진로교육지원센터, 교육부 공모 선정

‘틈만나면, 창업 in Busan.’으로 부산형 청소년 창업생태계 조성

부산광역시 사하구·동래구·사상구·영도구·중구·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가 함께 하는 ‘유유마켓’팀이 교육부 주관 ‘2026년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5월 14일 밝혔다.



이런 선정은 부산 6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공동 기획과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업은 ‘틈만나면, 창업 in Busan.’을 주제로 청소년이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시제품으로 구현해 보는 지역 연계형 창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6개 센터는 지역 학교, 부산여자대학교RISE사업과 연계해 부산여자대학교, 청년창업가와 협력해 청소년 창업동아리를 운영하며,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홍보·판매 체험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여자대학교 창업동아리 대학생들과 선·후배 멘토링을 운영하고, 분야별 청년창업가가 함께 참여해 청소년의 아이디어가 실제 결과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 창업동아리에서는 영도

이야기를 담은 카페 창업, 반려동물 NFC 기술, 유기동물 인식개선 제품, 부산 특색 베이커리, 친환경 장바구니, 청소년 아로마테라피 등 지역성과 생활문제를 반영한 다양한 창업 주제를 다룬다.

이후 ‘청소년 창업의 날’과 청소년창업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시제품을 판매, 홍보, 전

시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아이디어를 실제 시장과 연결해 보는 창업 실천 경험을 쌓게 된다.

부산 6개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진로 탐색을 넘어, 청소년의 도전정신, 자기주도성, 협업 역량, 지역사회 이해를 함께 기르는 부산형 창업체험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하구진로교육지원센터 강나민 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부산의 6개 진로센터가 힘을 모아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창업 경험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청소년의 작은 아이디어가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살아 있는 진로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오규 기자 hog@

부산교육청, 교원 정부포상·표창 전수식 개최

제45회 스승의 날 맞아 356명 표창... 교육발전 기여 교원 격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권한 대행 부교육감 이강국)은 5월 12일 오후 교육청 별관에서 ‘2026학년도 스승의 날 및 사립유치원 경영 유공교원 정부포상 및 표창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창은 제45회 스승의 날을 맞이해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한 교원 격려를 통해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다. 수상자는 스승의 날 유공 정부포상 12명, 장관표창 153명, 교육감표창 180명, 시장표창 2명, 사립유치원 경영 유공 교육감표창 9명 등 모두 356명이다.

이강국 교육감 권한대행은 전수식에 참석한 수상자 대표 47명에게 표창을 전수했다.



이강국 교육감 권한대행은 “술선수범의 자세로 창의적 교육 실천에 앞장서고 부산교육 발전에 기여한 선생님들의 값진 공로를 기리며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스승의

노력과 열정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선생님들이 교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형 기자 ijh@

수영강변 밤바람과 함께 즐기는 도심 속 야외상영회

영화의전당, 9월 1일까지 고전부터 신작까지 전 세대 아우르는 총 11편 선보여

따스한 봄비가 지나가고 싱그러운 초록이 짙어지는 5월, 영화의전당의 대표적인 공익 프로그램인 ‘2026 영화의전당 야외상영회’가 다시 관객들을 찾아온다.

2012년부터 시작된 야외상영회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야외극장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영화를 즐기는 무료 상영 프로그램으로, 매년 많은 시민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부산의 밤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고 5월 11일 밝혔다.

영화의전당의 상징인 거대한 ‘빅루프’ 아래 위치한 야외극장은 날씨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도, 수영강변의 정취와 야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독보적인 매력에 지닌 곳이다. 관객들은 시원한 밤공기를 맞으며 간식을 즐기고 영화를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올해 상영회는 5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지며, 고전부터 신작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총 11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계절의 변화가 스며든 밤 풍경 속에서 스크린 너머의 이야기가 관객

모두의 소중한 추억으로 새겨지는 낭만적인 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5월에는 기본 좋은 활력과 깊은 울림을 주는 음악 영화들이 관객을 맞이한다. 야외상영회의 거울을 유쾌하게 그려낸 <스윙걸즈>(5/12 상영)로, 낙제생 소녀들이 재즈 밴드에 도전하며 선사하는 좌충우돌 성장기의 무해한 웃음을 만날 수 있다.

이어지는 <크레센도>(5/19 상영)는 세 세계를 열광시킨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와 음악을 향한 청춘들의 치열한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야외극장의 압도적인 음향 시스템을 통해 전율의 순간을 재현할 예정이다.

6월에는 풋풋한 첫사랑의 기억을 소환하는 <나의 소녀시대>(6/23 상영)가 상영된다. 대만 청춘 로맨스의 정석이라 불리는 이 작품은 찬란했던 학창 시절의 추억과 설렘을 선사하며 초여름 밤의 감성을 촉촉하게 적신다.

한여름의 절정인 7월은 야외상영의 묘미를 극대화할 다채로운

화제작들로 꾸며진다. 호기심 많은 소년들이 어느 노인을 만나며 삶과 죽음, 우정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따뜻한 감성으로 전하는 <여름정원>(7/7 상영)을 시작으로, 쿠바 음악과 화려한 요리의 향연이 오감을 자극하는 <아메리칸 셰프>(7/14 상영)가 한여름 밤의 미식 여행을 제안한다. 또한 <하이파이브>(7/21 상영)는 예기치 않게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된 평범한 인물들이 펼치는 코믹 액션 활극으로, 통쾌한 웃음과 시원한 에너지로 전할 예정이다.

이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7/28 상영)은 한 사건을 둘러싼 어른과 아이들의 시선을 섬세하게 교차시키며 관계와 진실의 의미를 되짚는 작품으로, 깊은 여운과 묵직한 감동을 선사한다.

8월과 9월은 시대를 초월한 로맨스와 명작의 향연이 여름밤을 물들인다. 소피 마르소와 프랑수아즈 콩통의 사랑으로 불리는 <라뷰 2>(8/12 상영)는 심대 시절의 설렘과 성장통을 사랑스럽게 담아내 낭만적인 감성을 전한다. 이

어 한국 대표 멜로영화 <봄날은 간다>(8/18 상영)는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라는 오래도록 회자되는 대사와 함께 사랑의 시작과 끝, 그 쓸쓸한 여운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또한 음악으로 이어진 두 남녀의 특별한 만남을 그린 <원스>(8/25 상영)는 진솔한 감성과 아름다운 OST로 다시 한 번 관객들의 마음을 여무만진다. 끝으로 영원한 은막의 요정 오드리 헵번 주연의 <로마의 휴일>(9/1 상영)이 상영되어 도심 속 야외상영회의 마지막 밤을 우아하고 낭만적인 고전의 향기로 채울 예정이다.

밤바람 타고 펼쳐지는 스크린과 함께 휴식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는 ‘2026 야외상영회’는 5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지정 화·수요일 20시에 상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별도의 예매 절차나 티켓 없이 입장 가능하며, 우천에도 정상 진행한다. 주차는 상영 당일 QR코드로 차량 등록 시, 최대 4시간까지 정액 2천원으로 제공한다.

상세한 일정과 관람 유의사항은 영화의전당 홈페이지(www.dureraum.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화문의/051-780-6080)

황오규 기자 hog@

제1회 이충무공배 핀수영대회 충남 아산시 성료

전국 16개 시·도 414명 선수 참가 총 800여 명 모여 화합의 장



충청남도도와 아산시가 주최·주관한 제1회 이충무공배 핀수영대회 겸 제2회 충남체육회장배 팀주발대회가 지난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아산메미수영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수중핀수영 종목의 저변을 확대하며 충남 수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1회 이충무공배’는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담아 개최돼 참가자와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대회 규모 및 참가 현황에는 ▲참가 선수: 총 414명 ▲전국 참가: 16개 시·도 선수단 ▲총 방문 인원: 선수 및 관계자 약 800명의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들은 대회 기간 동안 치열한 경쟁을 펼치

며 동시에 화합의 장을 만들어냈다. 아산메미수영장은 이틀간 열정적인 응원과 합성으로 가득 찼다. 충청남도수중핀수영협회 박상배 회장은 대회사에서 “아산을 찾아주시는 전국의 핀수영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이 한 단계 도약하고, 수중핀수영이 더욱 사랑받는 스포츠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산시를 방문한 모든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기원했다. 또한,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 김병범 충청남도체육회장, 임도훈 아산시체육회장, 박병철 아산시수중핀수영협회 회장 등이 축사에 나서 대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참

가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했다.

이번 대회는 아산시체육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충남체육회의 후원과 광동제약, 금강생크, 샤프, 향, 지산축돈, 아산아레나, 아름다운철물점, 피니쉬라인, 메버릭스포츠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 운영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초등부 참가 학부모들은 “아이가 핀수영 경기를 너무나 재미있어 했고, 대회 관계자들이 매우 친절했다”며, “다른 대회와 달리 상장까지 수여해 더욱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충남수중핀수영협회 관계자는 “이번 제1회 이충무공배 대회가 향후 국내 핀수영 대회의 표준이 되는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수중핀수영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건강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기 개최를 넘어, 지역 스포츠 활성화와 역사적 인물을 기리는 문화·스포츠 융합 행사로서 의미를 더했다. 충청남도도와 아산시는 앞으로도 핀수영 종목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윤영 기자 juy@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지능형과학실 조성

설계부터 가구, 기자재 구축까지 ONE-STOP 솔루션 제안

미래교육 환경에 최적화된 공간 설계와 스마트한 가구, 첨단 기자재를 하나로 연결하여 창의적이고 안전한 과학실을 완성합니다.



맞춤형 공간 설계
교육과정과 실험 특성에 최적화된
공간 구성 및 디자인



통합 솔루션 제공
인테리어, 가구, 기자재를
원스톱으로 구축



안전하고 스마트한 환경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스마트한 실험 환경 구현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안정적인 운영 지원



월드퍼니처 남부사업단

051-755-832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 42번길 50, 1층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학교 예술활동 지원

초·중·고 25개교 대상 5월부터 12월까지 '2026년 꿈·끼 성장 지원사업' 운영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사장 최지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안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학생 꿈·끼 성장 지원사업'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2000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출연금과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2022년 기존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에서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생 성장 지원 사업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문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학교 현장에 무대 시스템과 공연 운영 전문 인력을 지원



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25개교를 대상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

한 공연을 선보이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직접 공연을 기획하고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업과 표현의 경험을 쌓았으며, 공연장을 찾은 학생과 교직원들도 학교 공간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관람하며 일상 속 문화예술을 즐겼다.

최지현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이사장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자유롭게 펼치고 예술로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학생 참여 중심 문화 예술 활동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7월부터 학교시설 예약도 온라인으로

충북교육청, 공유누리 사용자 교육 실시

충청북도교육청은 15일 교육연구정보원 세미나실에서 도내 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 업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온라인 예약 공유누리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누리'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개방자원 공유 플랫폼

으로,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회의실·주차장·체육시설 등 개방 가능한 시설과 물품을 검색·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날 교육은 공공자원 개방·공유 플랫폼 분야 개발 전문가인 김정민 (주)브이티더블유 이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자원 '공유누리' 시설 등록 방법 ▲시스템을 활용한 시설 예약 관리 ▲행정업

무 효율화 방안 등으로 구성됐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 학교시설에 대한 공유누리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7월 1일부터 학교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전면 시행해 본격적인 서비스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기성 기자 ygs@

청주IT과학고, 함께 뛰며 소통하는 사제동행 리그

충북교육청 '어디서나 운동장' 연계 기초 체력 증진 활기찬 학교 문화 조성

청주IT과학고등학교(교장 장태선)는 충북교육청의 핵심 교육 정책인 '어디서나 운동장'과 연계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사제동행 몸근육 키우기 축구 리그'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증진하고 활기찬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점심시간을 활용한 자발적 참여 중심의 리그 방식으로 운영돼 학생과 교사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함께 어울리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리그에는 1~3학년 학생과 교사가 함께 구성된 4개 사제동행 팀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선·후배 및 교사와 함께 경기에 참여하며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세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는 지난 7일부터 점심시간마다 예선전 6경기를 진행했으며, 결승전은 15일 열린 '교내 체육 한마당'에서 전교생과 교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운영됐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며 학교 구성원 간 거리감을 줄이고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

3학년 이동빈 학생은 "점심시간마다 친구와 선·후배,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에서 뛰며 모두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라며 "몸도 건강해지고 교우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는 뜻깊은 추억이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리그에 참가한 정남호 청주IT과학고 교감은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맞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주)유유제약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취업 연계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한석일)는 15일 (주)유유제약(대표이사 유원상)과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주)유유제약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기업 현장 중심 교육 강화와 산업체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생산 현장 견학 ▲인턴십 및 현장실습 ▲산업체 전문 기술 강사 특강 ▲바이오제약 기업 맞춤형 운영 ▲연구개발 및 제조 분야 채용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유유제약은 1941년 설립된 제약기업으로, 충북 제천에 본사



와 공장을 두고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바이오·제약 분야 현장 중심 인재 양성과 산업체 연계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석일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

이 산업 현장 중심 교육을 경험하며 실무 역량과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산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실질적인 취업 연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운호고, 지역 홀몸 어르신 삶 담은 '미니 자서전' 제작

3학년 학생 28명 3년간 이어온 지역 어르신과의 소통 활동 마무리

운호고등학교(교장 설덕종) 3학년 학생 28명은 14일 지역 홀몸 어르신 20명을 학교로 초청해 '미니 자서전 제작'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지난 3년간 이어온 지역 어르신들과의 소통 활동을 마무리하며 준비한 '마지막 선물'로 마련됐다.

운호고는 그동안 ▲편지가 담긴 필사집 제작 ▲음원 및 방한용품 제작 ▲향기 테라피 ▲세대공감

동행 프로그램 ▲마음잇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과 꾸준히 교감해 왔다.

행사 당일 학생들과 1대1로 매칭된 어르신들은 교복을 입고 교

정을 둘러보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어 학생들과 함께 꽃바구니를 만들며 진행한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어르신들의 유년 시절 이야기부터 삶의 지혜가 담긴 조언까지 진솔한 인생 여정을 경청하고 기록했다.

인터뷰 후에는 학생들의 합창 공연과 점심 식사가 이어지며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정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운호고는 이날의 기록을 바탕으로 미니 자서전과 현장의 감동이 담긴 영상·노래 녹화본을 제작해들과 꾸준히 교감해 왔다. 행사 당일 학생들과 1대1로 매칭된 어르신들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다.

활동에 참여한 박상혁(3학년) 학생은 "어르신들의 삶을 직접 받아적으며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느꼈다"라며 "저희가 드린 선물보다 더 큰 가르침을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설덕종 운호고 교장은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하며 단순한 봉사를 넘어 세대 간 공감과 존중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라며 "이번 자서전 제작이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위로가 되고 학생들에게는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충원고 학부모회, 스승의 날 감사 행사

수제 열쇠고리 나눔·사제동행 포토존 등 진행

충주 충원고등학교(교장 김수정)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학부모회 주관으로 교직원 대상 수제 열쇠고리 나눔과 사제동행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따뜻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부모회는 정성을 담아 직접 제작한 붉은 카네이션 모양의 열쇠고리를 교직원들에게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교내에는 큰 종이꽃(지화)으로 꾸민 특별 포토존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포토존에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사제 간 정을 나누고 뜻

깊은 추억을 만들었다. 충원고 '뒷바라지 학부모회'는 오는 20일 열리는 학교 축제에서도 먹거리 장터 운영에 참여하는 등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수정 충원고 교장은 "스승의 날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학부모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따뜻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100% 참자연 그대로
보리, 현미 쌀국수
참자연 그대로 쌀국수
밀가루 NO!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건강한 국수

- ※ 청원생명쌀로 만든 친환경 쌀국수
- ※ 청주시 학교급식 선정 제품!
- ※ 밀가루 0%, 100% 국산 곡물만 사용
- ※ HACCP 인증 시설 + 특허 받은 국수 제조 기술

※ **우리 아이 급식, 이왕이면 쌀로 만든 건강한 국수로!** 밀가루를 전혀 섞지 않고 국내산 곡물만으로 만든 쌀국수! 남는 쌀 소비 + 학생 건강까지 생각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학교 답례품, 선물용으로도 딱!
정성 담은 건강한 국수,
돌잔치, 행사, 감사 선물로도 인기!

납품, 구매문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북로 836. 1층
 대표 윤충근 ☎ 010-5485-4748



숲은 살아있는 교과서, 생태 감수성 향상

전남 강진고, 학생별 맞춤형 성장 서사 쓴다

삼계중, 국립방장산자연휴양림서 '자연과의 교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삼계중학교(교장 김미애)는 4월 30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립방장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과의 교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삼계중학교(교장 김미애)는 4월 30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립방장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과의 교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1학년 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숲 생태체험 활동 속에서 학생들의 학문적 소양을 탐색하고, 환경 보존과 관련된 진로 인식을 높이며, 또래와 함께 하는 활동으로 학교생활과 학업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국립방장산자연휴양림에서 탐방로를 걸으며 생태를 관찰하고, 탄소흡수원이자 산소공

부의 배움을 함께 나누며 자연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됐다.

김OO 학생은 "숲속을 걸으며 나무들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편백베개를 직접 만들면서 자연을 활용한 직업에도 관심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미애 교장은 "숲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생태의 소중함을 느끼고,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박종열 기자 2580news@daum.net

전교생 대상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 위한 'K-미래인재 탐구 프로젝트' 실시

전남 강진고등학교(교장 오유나)는 지난 5월 1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개개인의 전공 적합성과 자기주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 K-미래인재 탐구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지난 3월 첫발을 댄 이후 이번 5월, 어느덧 3회기를 맞이한 이 프로젝트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3개년에 걸쳐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이다.

특히 공강 시간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계하여 교과 담당 교사가 학생과 소그룹으로 매칭되어 주제 탐구 보고서 작성을 밀착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학년별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세계와 미래를 향한 심화 탐구로 이어지는 '단계적 성장 서사'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1학년(K-가치 창출)은 강진의 역사와 문화를 탐색하며 정체성을 확립하고, 2학기에 지역사회 문화 콘텐츠를 추구하고 있는 공연을 우리 학생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 이러한 공연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꾸준히 관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박종열 기자 2580news@daum.net

학생들의 탐구 질문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통찰을 전하며 연구의 전문성을 한층 높여주었다.

학생들은 전문가의 지식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공 관련 학술 자료를 직접 분석하며 자신만의 탐구 질문을 도출하는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탐구 결과물은 AI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 형태로 제작되어 학기 말 'K-미래인재 컨퍼런스'를 통해 전시 및 발표될 예정이다.

오유나 교장은 "이 프로젝트는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전문가와 연결되어 답을 찾아가는 '자기주도적 연구 모델'의 정점이다"라며, "강진고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전공 적합성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고, 학생들이 자신만의 진로 서사를 담당히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기자 2580news@daum.net

학교 현장이 다양한 장르 어우러진 이색 공연의 장

진도초,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별별 예술극장' 프로그램 운영



진도초등학교(교장 구우서)는 지난 5월 14일 2학년, 5학년 학생들과 함께 진도군문화도시센터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문화학교 < 별별 예술극장 >' 프로그램을 운영

했다. <별별 예술극장>은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으며 공연 관람과 더불어 학

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무대에서는 형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학년과 5학년이 관람한 '젼스틱' 프로그램은 타악기 중심의 앙상블 공연으로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즉흥 연주를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단순히 공연 관람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 등의 메시지가 담긴 재사용 악기 퍼포먼스, 인성교육 샌드아트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5학년 박OO학생은 "재사용으로 만들어진 악기가 이렇게 멋진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무대에 올라 연주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2학년 최OO 학생은 "공연하는 사람들이 정말 멋졌고, 좋아하는 노래를 악기 연주로 들으며 부를 수 있어 즐거웠다"라고 하였다.

구우서 교장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추구하고 있는 공연을 우리 학생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 이러한 공연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꾸준히 관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장성석 기자 2580news@daum.net

여수 죽림초, 죽림어울림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재학생·학부모 800명 열광 속 아름다운 국악 선율로 관객 매료

전남 여수 죽림초등학교(교장 조영진)의 '죽림어울림국악관현악단'이 지난 12월 8일 교내 죽림관에서 재학생 및 학부모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는 국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을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공연은 '죽림어울림국악관현악단'의 '대정창'의 연주를 시작으로 국악관현악과 노래 협연, 합주 등 총 9곡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케이팝데몬헌터스의 대표곡인 'Golden'을 국악관현악으로 편곡해 선보였을 때는 관객석에서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쏟아지며 공연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광양시립국악단과 여수시립합창단 단원들의 찬조 공연은 연주회의 풍성함을 더했다. 지난 4년간 국악관현악단을 이끌며 학생 지도와 공연 지휘를 겸

해 온 유재영 교사는 매 곡이 시작되기 전 곡의 특징과 연주상의 특이점 등을 직접 해설해 관객들의 국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유재영 교사는 연주회를 마친 소감으로 "지난 몇 달간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땀을 쏟아 부으며 오늘 이 무대를 만들어 준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학생들의 이러한 노력이 오늘 아름다운 국악 선율로 관

객분들께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지도교사로서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조영진 교장은 "오늘의 공연을 보며 단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음악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한 것이 느껴졌다"면서, "앞으로도 국악관현악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태석 기자 2580news@daum.net

광양중앙초, 장애인식개선 공모전서 전남인재상 수상

'다 함께 누리는 세상' 주제 영상 출품... 전라남도의회장상 수상

광양중앙초등학교(교장 최현) 광양중앙 상상드림팀(장서연 학생 외 7명)이 광양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한 '제17회 장애인식개선 공모전'에서 영상 부문 전남인재상(전라남도의회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최되는 행사로, 올해로 17회를 맞이했다. '다 함께 누리는 세상'을 주제로 2월 4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미술·문학·영상·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국에서 총 626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수상작은 1·2차 내부심사를 거쳐 주제 적합성, 표현력, 완성도, 종합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선정됐다. 광양중앙초 학생들이 출품한 영상 작품은 장애 이해와 공존

의 가치를 진지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담아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아 특별상인 전남인재상에 선정됐다. 이택훈 지도교사는 "우리 학생들이 장애 이해와 공존의 가치를 스스로 탐구하고 영상으로 표현해 낸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학생들의 표현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옥란 기자 2580news@daum.net

우선구매대상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의 친환경 다중 OH 라디칼과 나노버블수를 이용한

그리스트랩 오수정화장치

그리스트랩 오수처리장치로 청소 및 유지관리는 수월하게!
급식 위생과 직결되는 조리실 환경을 청결하게!

주식회사 한스쿨

한아름테크 (전남 총판)

전화 0505-629-3366
팩스 0505-619-3366

전북교육청, 고교 진학지도 컨설팅 운영

서울대와 함께 맞춤형 진학지도 지원... 18개 고교 대상 19~20일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대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과 함께 하는 '고교 진학지도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식과 학생 선발 방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과 대입제도 변화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진학지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학교별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컨설팅은 도내 1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9일 오후 2시~5시 10분까지,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본청 창조나래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이루어진다.

학교별 대표 교사가 참여해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방향, 대입 지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상담 시간은 학교별 50분으로 해당 학교가 사전에 제출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대입전형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컨설팅과 연계해 '2027학년도 서울대학교 입시설명회'도 운영한다.

학생·학부모 대상 입시설명회는 19일 오후 7시 창조나래 3층 시청각실에서, 교사 대상 입시설명회는 20일 오후 7시 같은 장소

에서 열린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서울대 고교컨설팅은 대학과 고교가 직접 소통하며 변화하는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고등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진학지도를 펼칠 수 있도록 대학 연계 진학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급식 도모

제8회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8회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을 개최한다.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은 기후 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급식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전환 계기 마련을 위해 전북교육청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참여해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의 가치를 공감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모 분야는 그림일기(초 1~3학년), 포스터(초 4~6학년/중·고생), 캠페인 사진(유·초·중·고생, 교직원), 쇼트폼(유·초·중·고생, 교직원), 이모티콘(초·중·고생, 교직원) 등 5개 분야다.

공모 주제는 건강한 나를 위한 '영양급식',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생태급식', 배려와 존중이 살아있는 '인성급식', 위생과 질서를 지키는 '안전급식', 미래와 세계를 향한 '창의급식' 등이다.

작품 접수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우편(전주시 완산구 흥산

로 111, 전북교육청 문예제건강과 학교급식팀) 또는 이메일(guswls1261@jbedu.kr)로 하면 된다.

각 분야별로 대상 1편, 최우수 2편, 우수 3편, 장려 10편을 선정해 교육감상 및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자료집으로 제작·배부해 바른 식생활 교육 및 학교급식 홍보 전시 등에 활용한다.

작품 제출 규격, 유의사항 등 '제8회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소통·존중 함께하는 조직문화 만든다

유정기 권한대행과 직원 40여 명 '조직문화 열린 소통 마당' 개최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조직문화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전주 완관분관관에서 유정기 권한대행과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문화 열린 소통 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조직문화 진단 및 실천 과제 마련 이후 소속 기관인 교육지원청 직원들과 조직 내 비효율적인 관행 등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1부 '열린 소통 마당'에서는 직



원들이 조직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교육감 권한대행이 이를 경청하며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구성원 간 '연결 부족'으로 인한 협업 한계 △2인 행정실 구조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리 어려움 △결과 중심의 문화로 인한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었다.

2부는 조직문화 및 회의문화 전문가인 플랜비그룹 최익성 대표가 강사로 나서 '참여형 회의문화 개선' 특강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효율적이고 수평적인 회의 운영 원칙 및 기법을 사례를 공유하며 실무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제시된 우수 의견을 현장에 적극 안내하고, 소통 활성화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 실천 과제와 연계한 후속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사람 간 신뢰는 결국 직접적인 소통에서 시작된다. 성과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의 소통과 존중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며 "구성원 간 신뢰 형성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김홍태 기자 kht@



"대학 캠퍼스 경험하며 미래 꿈 키워요"

전북교육청,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지원 사업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진학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장애학생 대학 생활 체험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장애학생들이 실제 대학 캠퍼스에서 다양

한 대학생활을 경험함으로써 대학 진학에 대한 자신감과 진로 설계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특수학교 전공과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는 2년 과정으로, 대학 진학과 함께 장애학생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장애학생의 대학 진

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학 환경에 대한 사전 경험과 적응 지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올해는 우석대학교와 전주기전대학교에서 진행되며, 도내 15개교 4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우석대는 5월 12일과 14일, 전주기전대는 1차 5월 14일~15일, 2차 6월 18~19일 운영한다. 학생들은 대학 강의실과 편의시설 이용, 학과 체험, 캠퍼스 적응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 방향을 스스로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지난해 대학생활 체험에 참여한 학생 39명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장애학생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자신의 미래를 직접 그려보는 경험은 매우 의미 있는 성장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진학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초록우산 전북분부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힘 모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유정기)과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미애)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뜻을 모았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박미애 본부장은 13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학여행 지원사업비 타당성'을 가졌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창 시절의 소중한 추억인 수학여행 참여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기준 초등학교 20만 원, 중학교 25만 원, 고등학교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여행 경비가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저소득 가정에는 부담이 돼

왔다.

이에 초록우산은 지난 3~4월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해 수학여행비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학생 104명에게 수학여행비 자부담과 준비비 등 총 3,168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교육청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비용을 5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박미애 본부장은 "수학여행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여행을 넘어

또래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소중한 추억을 쌓는 교육의 연장선"이라며 "가정 형편 때문에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아동들의 행복권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펴준 초록우산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우리 교육청도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시민감사관과 함께 정책 감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본청 창조나래 2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시민감사관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4년 임기를 시작한 제7기 시민감사관의 마지막 실지감사다. 시민감사관은 건축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전북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조사 및 평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반기 감사는 △특수교육 지원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외국어 교육정책의 현황과 성과 △학교시설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 및 해체 감리 운영 적성성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순한 지적 중심의 감사가 아닌 정책 운영 실태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감사 결과는 시민감사관 협의회 명의로 교육감에게 제출되며, 관련 부서에서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교육정책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다.

이홍렬 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형 청렴 정책 추진을 통해 더 공정하고 신뢰받는 전북교육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PA·AV 산업의 뉴리더 (주)케빅은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약속드립니다.

학교방송시스템 우수제품기업 주식회사 케빅

장영실상 수상

우수조달제품

나라장터등록

우수디자인 선정

우수발명품

GS인증 1등급

G-PASS 인증

[부안 교육문화회관]

[전남 예술고등학교]

[신남 중·고등학교]

[조선대학교 서석홀]

[철원 고등학교]

[서울 매봉초등학교]

주식회사 케빅
www.kevic.com

본사 : 경기도 의정부시 배꽃길 105, 1동 606호 (민락동, 의정부 더리브 센텀스퀘어 지식산업센터)
서울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4길 5 (도곡동 449-8)
공장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곡길 17-40 (청양리 2876-1) 김화농공단지

제품문의 1661-2669

殷字·東夷·韓民族 이야기

백제의 이름, '밝은 나라'에서 '일본'까지

역사는 과거를 읽는 일이지만, 단지 지나간 세월을 정리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는다. 역사는 오늘을 비추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울이 된다. 그래서 국호(國號), 즉 나라의 이름을 세심 살펴보는 일은 단순한 어원 풀이가 아니다. 이름은 정체성이고, 그 이름에 담긴 뜻은 후대가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큰 자산이 된다.

우리에게 백제는 교과서 속에서 흔히 "한반도 서남부의 소국,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최근 학계와 현장의 발굴은 그 단순화된 서술에 불응표를 던진다. 백제의 범위는 더 넓었고, 영향력은 훨씬 깊었으며, 무엇보다도 그 이름이 지닌 의미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풍부했다.

□ 백제라는 이름의 여러 얼굴

문헌과 금석문에는 백제의 국호가 한 가지로만 등장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百濟(백제) 말고도, 광개토태왕비에는 百殘(백잔), 다른 기록에는 十濟(십제), 또 이체자인 佰濟, 남부여(南扶餘)라는 표기도 보인다. 일본에서는 俱太羅(구다라), 百濟(일본식 발음 구다라)라 불렀다. 더 나아가 은유적 표현으로 扶桑, 風俗, 半島라는 지칭까지 섞여 있다.

이처럼 다층적이고 이질적인 표기들이 얽혀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연구자들이 찾은 것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낼 '어원 열쇠'이다.

□ '백'과 '제', 문자에 담긴 빛과 물

먼저 '백(百)'이라는 글자를 보자.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본래 엄지손톱의 흰 빛을 그린 상형이었다. 그 흰빛이 곧 밝음, 순수함을 뜻하게 되었고, 후대에 '백'의 의미가 붙으며 수사 '백(100)'이 된 것이다. 결국 그 뿌리는 '밝음'이었다. [그림 30] '百' 참조

'제(濟)'는 본래 제나라의 '제(齊)'에서 갈라져 나온 글자다. 물(水) 변이 붙으며 강과 관련된 뜻으로 발전했다. 중국의 제수(濟水)와 연결되고, 후대에는 '건너다', '구제하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그러나 百濟는 문자적으로도 '밝음'과 '강'이 결합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0] '濟' 참조

□ 예군 묘지명에 새겨진 단서

2011년, 중국 서안에서 발견된 한 묘지명은 백제사 연구에 큰 충격을 주었다. 백제계 인물로 추정되는 '예군(彌群)'의 묘지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日本餘燼(일본의 여초, 전란 뒤 살아남은 무리)", "扶桑에 의지하여 죽임을 면했다."

여기서 '일본'을 단순히 열도, 즉 야마토로 읽을 수는 없다. 당시 맥락에서 '餘燼(여초)'는 멸망한 나라의 잔민을 뜻했으니, 이는 분명 백제를 가리킨 것이다. 같은 문맥의 '扶桑'이 일본 열도를 가리

[그림 30] (百, 濟) 자의 형성과정

Table showing the evolution of the characters '百' and '濟' from bronze inscriptions to modern Hanja.

키는 은유로 쓰였음을 고려하면, 문장은 이렇게 읽힌다. "망국 백제의 유민이 일본(扶桑)에 의지하여 살아남았다." 즉, 묘지명 속 '日本'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바로 백제를 지칭했다고 보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 왜가 일본이 되다, 그리고 백제

『신당서』는 함형 원년(670)에 왜가 국호를 '일본'으로 바꾸었다고 기록한다. 『삼국사기』 문무왕 10년조에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하지만 『구당서』와 『신당서』의 서술은 미묘하게 다르다. 한쪽은 "일본이 예전 작은 나라였는데 왜를 병합했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왜가 일본을 병합했다"고 전한다. 명칭이 혼용되던 전환기의 혼란이 드러난다. 해석은 이렇다. 백제 멸망 이후 유민과 지배층이 열도 정치에 깊이 편입되

었고, 그 결과 670년 국호 '일본' 채택은 백제 재기의 성격을 띠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은 단순히 왜의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백제인의 자의식이 투영된 이름이었다.

□ '해의 근본', 일본과 백제를 잇다

여기서 흥미로운 언어학적 연결고리가 등장한다. 고구려 건국지로 알려진 '졸본(卒本)'은 광개토태왕비에는 '홀본(忽本)'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홀'은 '해'를 뜻하는 말과 음운적으로 이어지고, 결국 '日(해)의 본(근본)'이라는 '日本'의 의미망과 연결된다. 소서노가 졸본에 부여 혈통이라는 전승, 해모수·주몽의 태양적 신화 계보와 겹쳐 보면, '해의 근본'이라는 관념이 이미 고대 건국서사 속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백제, 밝음의 나라

우리 고대 국호 가운데는 태양과 광명 관련 이름이 많다. 조선(아침 해가 비치는 나라), 부여(별관, 햇빛이 드는 곳), 고구려(높음, 태양), 발해(큰 바다에 뜨는 해) 모두 그렇다. 백제도 예외가 아니다.

국어학자 양주동은 백제를 '밝은 성(城), 곧 광명성'으로 풀이했다. '백'은 밝음, '제'는 성·고을을 뜻하는 자음(齊)의 음차라는 것이다. 결국 백제는 '밝은 땅, 해가 비치는 나라'라는 뜻으로 확장된다. 이는 예군 묘지명의 '日本(해의 근본)' 은유와도 정확히 호응한다.

'백달'이라는 말도 같은 계열이다. '백-달(양달, 해가 뜨는 곳)'이 '백달'로 발전했고, 이는 곧 밝은 나라, 태양의 나라를 뜻했다. 백제의 이름도 바로 이 '밝음'의 계열에 속한다.

□ 다양한 별칭과 변이

물론 백제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들도 있었다. '十濟(십제)'는 몽골어·튀르크어의 '은(은, 열)'과 연결짓는 가설이 있지만, 『수서』의 "백가가 바다를 건너 백제라 부름"과 같은 후대식 설명에 가깝다. '남부여(南扶餘)'는 부여계 혈통을 강조한 표기였다. 일본에서 부른 '구다라(俱太羅)'는 어원설이 다양하다. '큰 나라(大) + 타라(땅)'라는 풀이, 공주 구드레 나무에서 비롯되었다는 지명설, 심지어 브리야트계 민족명과의 연결까지 제기된다. 일본어 속 '구다라나이(くだらない, 하찮다)'가 여기서 비롯되었

다는 설까지 있지만, 아직 분분하다.

□ 맺으며

사료, 금석문, 언어학, 신화학 상징을 종합하면, 백제라는 이름은 결국 '밝음, 해, 근본'이라는 의미장으로 수렴한다. 예군 묘지명 속 '日本'이 백제를 지칭했다는 해석은, 백제의 멸망 이후에도 그 이름과 상징이 일본 열도 속에서 살아 남아 정치적 재편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660년 백제가 무너진 뒤, 불과 10년 만에 왜가 '일본'으로 국호를 바꾼 사실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백제인의 기억과 정체성이 열도에도 깊이 뿌리내린 사건이었다.

결국 백제는 '밝은 땅, 해의 나라'였다. 그 이름 속에는 태양의 힘과 동아시아를 가로지른 백제인의 활력이 함께 담겨 있다. 오늘 우리가 백제를 다시 불러내는 까닭은, 단순히 잊힌 나라를 복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이름에 깃든 빛을 오늘의 자존과 내일의 역량으로 되살려내기 위함이다.



□ 육우균

◇ 교육연합신문 주필

전재학의 교육칼럼

오지선다형 수능, 개선해야 할 교육의 본질을 가로막는 틀

"이제 수능 개혁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위한 것이기에 더욱 필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

오지선다형 수능능력시험(수능)은 효율성과 공정성을 앞세워 오랜 기간 강력한 힘을 발휘해 왔다. 하지만 이제 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현장에서는 수능 체제가 AI 시대, 최첨단 과학·기술의 디지털 시대에는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강력한 틀이라는 사실에 이구동성으로 공감한다. 그동안 우리 교육이 배출한 유능한 엘리트들은 실제로는 교육 현장에서 빠른 시간에 정답을 찾는 '기술'을 익히는 구조에 남다르게 익숙한 인재들이었다.

이 같은 경향은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키는 구조로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이루어 왔다. 왜냐하면 객관식 수능은 '선택지를 제거하는 기술'을

요구하는 형태고,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일수록 전문 사교육이 의존해 효과를 얻어 결국 계급의 세습화를 부채질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국내의 수능 운영 방식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제한적이다. 다만, 2028학년도부터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사고력 평가 강화가 기대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다만, 공정성과 비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런 논의들은 개관식의 한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과 맞물려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같은 서술·논술형 대입 시험은 사고력과 표현력을 측정하는 데 유리하며,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서술형 문항 도입에 대해 "학생들의 사고력이나 깊이 있는 성찰 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 진일보한 방법"이라며, "2028학년도부터의 도입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 시사 전문가는 "서술형 문항은 전산 채점이 어렵고, 채점 기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역시 채점의 신뢰성과 관리 비용 문제는 현실적인 장애물로 지적된다.

앞서 말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전통적인 논술형 중심 평가 방식으로 역사적으로 사고력과 논리적 표현을 핵심으로 여겼다. 프랑스어 과목은 수험생

이 출제된 주제에 대한 긴 글을 작성해야 하며, 수학은 풀이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도 유사한 방식의 논술·서술형 대입 평가를 채택하고 있어, 학습자의 '사고하는 능력'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흐름은 우리 교육도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닌 사고력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오지선다형 객관식 수능은 평가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만, 교육이 지향해야 할 사고력, 창의성, 다양성이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정답 중심의 구조는 이미 변화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혹자에 따라서는 수능

문제의 '해킹'조차 가능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제 요구되는 것은 선발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바람직한 민주시민 육상을 위한 '교육'이다. 여기엔 질문을 만들고,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전환은 필수다.

이제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수능의 고득점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교 시절 내내 문제 풀이 기술을 익혀 빠르게 정답을 찾는 것만이 학창 시절의 고정된 기억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고 말한다. 이렇게 길러진 우리의 엘리트들은 토의·토론조차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인재로 고위직에 올라 공인된 인재들임에도 '공부머리'와 '일마리'의 극심한 부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객관식 정답 찾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기존의 시스템에서 이득을 보는 기득권층의 완강한 저항과 반발로 밖에 볼 수 없다. 수능 개혁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개선이 가능한 평가 수단일 뿐이다. 개

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정체되고 퇴행한다. 이제 수능 개혁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위한 것이기에 더욱 필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수능 개혁을 도모하고 대비하는 것이라 믿는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세종포고·인천세원고 교장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최윤용의 100세 칼럼

허리를 펴야 삶이 편안해진다 : 만성 비특이성 요통을 다스리는 추나요법

바른 척추로 되찾는 100세 시대의 든든한 일상

원인 모를 허리 통증, '만성 비특이성 요통'의 골레 - 싱그러운 5월, 산과 들로 나들이를 떠나고 싶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섣달 걸음을 내딛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특히 X-ray나 MRI 검사를 받아도 뚜렷한 디스크 파열이나 뼈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빠르거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비특이성 요통(Chronic non-specific low back pain)'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요통은 단순히 허리 근육이 뭉친 것을 넘어, 척추 주변 근육과 관절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증이 몸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걷거나 앉아 있는 일상적인 동작조차 버거워지며, 근육 감소 및 우울감까지 초래하여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중요 대안으로 자리 잡은 '추나요법' - 이렇게 굳어지고 틀어진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바로잡는

한의학적 수기치료가 바로 '추나요법'입니다. 국제 학술지인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2014)에 소개된 바와 같이,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인체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척추와 관절의 구조적 문제를 교정하는 한의학적 수기치료법입니다.

최근에는 만성 통증 관리 분야에서 추나요법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제 저명 학술지(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에 발표된 서지학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만성 통증에 대한 추나요법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분석한 2025년 대규모 후향적 연구(BMJ Open)에서는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이후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의 추나 치료 활용이 매우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으며, 국민의 척추 건강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신 연구에서 입증된 추나요법의 통증 완화 및 기능 회복 효과 - 추나요법의 치료 효과는 엄격하게 설계된 임상 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6년 영국 의학저널(BMJ Supportive & Palliative Care)에 게재된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만성 비특이성 요통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하면 통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 기능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나요법은 다른 보존적 치료와 병행할 때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2026년 발표된 실용적 임상연구(BMC Complementary Medicine and Therapies)에서는 추나요법과 일반 물리치료를 병행한 그룹이 단독 치료 그룹에 비해 만성 요통 개선에 더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퇴행성 변화가 심한 '증상성 퇴행성 요추 전방전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2025년 다기관 임상시험(Mayo

Clinic Proceedings)에서도 추나를 포함한 비수술적 통합 치료가 척추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고 통증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대안임이 입증되었다는 점입니다.

신경을 재생하고 근육 위축을 막는 추나의 분자생물학적 효과기전 - 최근의 기초 과학 연구들은 추나요법이 단순히 뼈를 맞추는 물리적 자극을 넘어, 우리 몸의 세포와 신경 기능 조절을 통한 통증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손상된 신경의 재생을 돕습니다. 2025년 정형외과 연구 저널(Journal of Orthopaedic Surgery and Research)에 발표된 동물 실험 연구에 따르면, 추나 치료의 물리적 자극은 세포 내 특정 경로(Piezol/YAP/TAZ)를 활성화하여 신경을 감싸는 보호막인 '수초(myelin)'의 재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신경 손상으로 인한 근육 소실을 방지합니다. 요통이 오래되면 다

려가 가늘어지고 힘이 빠지기 쉬운데, 2024년 발표 연구에서는 추나요법이 근육 회복과 관련된 세포 신호(PI3K/Akt)를 조절하여 좌골신경 손상으로 유발된 근육 위축을 효과적으로 완화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셋째, 중추신경계의 통증 민감도를 낮춥니다. 2026년 세포 분자 의학 저널(Journal of Cellular and Molecular Medicine)에 실린 연구는, 추나가 척추 내 성장세포의 특정 경로(NDRG2/GLT-1)를 조절해 뇌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의 증폭을 억제함으로써 만성적인 신경병증성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바른 척추로 되찾는 100세 시대의 든든한 일상 - 성공적인 요통 관리를 위해서는 임상적 치료와 더불어 생활 습관 교정이 필수적입니다. ·자세의 인체공학적인 관리: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며 허리를 세워야 합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숙이는 대신 무릎을 굽혀 하체의 힘을 이용하는 습관은 요추에 가해지는 과도한 압축력을 분산시켜 구조적 변형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운동 요법 : 하루 30분 이상의 평지 걷기나 수영은 척추를 지지하는 핵심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는 추나 치료가 자극하는 근육 회복 신호와 결합하여, 신경 손상으로 인한 근육 위축을 방지하고 척추의 지지력을 높여줍니다. ·근육 이완과 스트레칭 : 틈틈이 허리



□ 최윤용

◇ 큰나무한의원 대표원장
◇ (주)트롬생약 대표이사



“위기 넘어 미래교육으로”... 도성훈 ‘읽건쓰시’로 인천교육 3기 비전 제시

읽건쓰·바다학교 전국화... 인천형 미래교육 성과 강조
교권 보호·기초학력 강화... 현장 중심 정책 보완 의지
AI융합교육·세계로배움학교... 3기 교육 비전 본격 제시

본지는 오는 6월 3일 전국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전국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민주적인 교육자치 발전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으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는 교육감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를 인터뷰해 소개하는 선거특집을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후보를 만났다. 이날 인터뷰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와 윤용상 대변인, 그리고 오승환 국제교육특보가 함께 배석했다. <편집자 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코로나19 팬데믹과 교권 이슈, 학령인구 변화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겪은 지난 8년 동안 인천교육을 이끌어온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3선 도전에 나섰다.

그는 ‘읽건쓰’로 대표되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과 AI 시대 교육혁신, 기초학력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미완의 과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10대, 제11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서 지난 8년의 소회를 말해달라.

“위기와 혁신이 공존한 8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임기 4년은 노란 점포를 입고 위기에 대응하는 데 보냈습니다. 적수 사태, 폐지 열병, 스쿨 미투를 하나하나 풀어가던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습니다. 교육청에서 퇴근하지 않고 한 달 이상 먹고 자며 대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저녁마다 직원들과 미래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정리하기를 반복하며, 수업의 변화와 새로운 학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임기는 인천만의 특과 교육인 읽건쓰, 바다학교, 아이플라토 등을 만들어 전국화·세계화의 길을 열었다. 공약이행률 99.1%, 3년 연속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SA등급. 어떤 위기 앞에서도 시민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겠다는 책임 행적의 결과다. 교육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몸으로 확인한 8년이었습니다.”

■ 지난 2기 인천시교육감으로서 추진했던 정책 중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가장 큰 성과는 읽건쓰다. 2022년 말 ChatGPT 등장으로 AI가 인간의 삶 깊숙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기술 문명에 휩쓸리지 않는 인간의 힘을 키우기 위해 읽기·듣기·쓰기를 결합한 읽건쓰를 만들었다. 현재까지 13만여 명의 학생 저자가 탄생하고 8,300여 권의 책이 나왔다. 구글이 “AI가 나왔을 때 모든 나라가 기술로 접근했는데 인천에서만 인간 중심으로 접근했다”며 협약을 체결한 유일한 교육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168개 섬과 바다를 가진 인천의 지리적 여건을 살린 바다학교, 아이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기르는 아이플라토도 인천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프로그램이 됐다. 직업계고 분야에서는 2025년 졸업자 기준 취업률 55.7%로 수도권 1위, 2024년 졸업자 유지취업률 85.3%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해 교사들이 혼자 교권 침해에 맞서지 않아도 되는 구조도 만들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 지난 2기 인천시교육감 임기 중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장 교사들이 정책의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한 부분이 가장 무겁게 남는다.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신설,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제도는 만들었지만 실제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변화로 완전히 이어지지 못했다.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교사가 바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더 빨리 알아야 했다.

끝맺지 못한 과제들도 있다. 고교학점제 운영의 현실화, 교원 정원 확대, 교원 처우 개선, 서해 5도 교원 지원 등은 교육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로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학교 현장지원방안 100선과 특수교육 여건개선 33개 과제도 임기 안에 모두 마무리하지 못한 채 다음 임기로 넘어가게 됐다. 지방교육재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학교운영비 부족으로 여름에 에어컨을 꺼야 했던 학교가 생긴 것은 교육감으로서 시면게 송구한 일이다. 이 모든 미완의 과제들을 완성하는 것이 3선에 나선 또 하나의 이유다.”

■ 후보께서는 이번이 인천시교육감 3선 도전인데 주요 공약을 들고 싶다.

“이번 임기의 출발점은 하나다. 기초부터 다시 다진다. 5세~9세를 독서 골든타임으로 묶고, 모든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세운다. 원도심 20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열어 부모 지원 사정과 무관하게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AI를 활용하는 방안도 세우겠다. 5개 권역 AI융합교육 센터를 통해 어느 동네 아이든 AI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매년 1만 명을 세계로 보내는 세계로배움학교로 인천 아이들의 시야를 세계로 넓히겠다. 진로의 선택지도 다양하게 만들겠다. AI 과학고·체육중학교·예술융합중학교를 새로 짓고,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를 법으로 못 박아 특성화고 졸업생이 불안정한 출발선에 서지 않도록 하겠다. 민주주의 교육과 학생자치권도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 정부회장이 직접 예산을 쥐고 공약을 이행하도록 500만·300만·300만·200만원의 공약이행비도 보장한다. 디지털 시대에 심리적 불안 겪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1교 1상담 인력을 배치하겠다. 신도심 업무를 담당하는 영종·검단 교육지원청 개청도 반드시 하겠다. 선거가 끝나도 이 약속들은 살아 있어야 한다.”

■ 후보께서는 이번이 인천시교육감 3선 도전인데 주요 공약을 들고 싶다.

■ 후보께서 인천시교육감 임기 중 추진해 오던 ‘읽건쓰’ 교육정책에 대해 말해 달라.

“읽건쓰는 2023년 1월 시작할 때부터 학교 안과 밖을 동시에 공략했다. 교육과정 속에 넣으면서, 동시에 인천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문화가 될 때 질적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득하며 시민 문화 운동으로 함께 키워왔다.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인천 시민의 생활 문화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다.

국내의 학술대회를 거치며 읽건쓰의 이론적 깊이를 더했고, 2025년 9월 구글과의 협약을 통해 세계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읽건쓰의 핵심 철학은 명확하다. AI 시대일수록 읽고 생각하고 쓰는 인간의 기본기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된다는 것이다. 책을 읽고 몸으로 겪고 직접 손으로 쓰는 과정이 아이들의 사고력과 정서 회복에 직결된다. 현재까지 13만여 명의 학생 저자가 탄생하고 8,300여 권의 책이 출간됐다.”

■ 우리 교육계에도 AI를 활용하는 교육이 도입되고 있다. 향후 인천교육의 AI 도입에 따른 ‘읽건쓰’ 교육정책의 변화는 무엇인가.

“읽건쓰와 AI의 결합, 즉 ‘읽건쓰 AI’가 그 답이다. 핵심 원리는 ‘H-A-H(Human-AI-Human)’다. 인간이 먼저 생각하고 질문하며, AI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 정보를 구조화하고, 다시 인간의 성찰과 직접 쓰기로 마무리하는 순환 구조다. 이 원리로 우리 아이들을 AI 시대의 지휘자인 ‘에르디토’로 키워내겠다.

생애주기별로도 적용된다.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는 독서 골든타임을 지켜주고 손글·발글 교육으로 예술적 감성을 키운다. 초등~중학까지는 긴 글쓰기를 통해 자기표현과 AI 과의존 예방, 통제된 환경에서의 AI 활용 능력을 기른다. 고교에서는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되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창의적 학습자로 완성한다. AI는 읽건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읽건쓰로 다진 인간의 사고력 위에 얹히는 날개다.”

■ 우리 교육계에도 AI를 활용하는 교육이 도입되고 있다. 향후 인천교육의 AI 도입에 따른 ‘읽건쓰’ 교육정책의 변화는